
2024년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결과보고서

신냉전 시기 김정은 체제의 자기재현과 그 효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목 차

1. 사업배경: 동북아시아센터 연구 및 활동	01
☐ 개요	01
☐ 추진 배경 및 목적	01
2. 사업내용	03
☐ 사업 추진 내용	03
☐ 일정별 추진 사항	04
☐ 참여 인력	05
3. 사업 성과	06
4. 예산	09
☐ 예산계획	09
☐ 실제 예산집행	10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11
☐ 사업평가	11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12
☐ 향후 계획	12
☐ 건의사항	12
6. 성과 관련 지표	13
7. 별첨	14

결과보고서 요약

사업기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사업명	2024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김백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사회학과	센터장/교수
사업기간	2024.4.1.~2025.2.15	사업비	

1.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신냉전 시기 북한 김정은 체제의 변화 양상을 ‘자기재현(self-representation, 자기표상)’이라는 분석 개념을 도입하여 해명함.
- ‘선전(프로파간다)이 통치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피통치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함을 강조하는 개념임에 비해, ‘자기재현’은 피통치 집단의 능동적 반응에 주목하여 체제의 자기재현을 역동적이고 쌍방향적인 과정으로 파악하며, 통치 집단의 통치 정당성 확보 과정을 중시함.
- 이를 적용하여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2018년부터 하노이 노딜, 코로나 사태, 신냉전의 양상이 고조되는 2024년까지의 북한의 담론, 통계자료, 영상매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자기재현 전략을 신냉전, 경제정책, 시각예술, 여성 담론, 선전 담론 등에 주목하여 분석함.

2.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사회학, 경제학, 미술사, 지역학 등 여러 다양한 전공분야 연구자들 간의 협업을 통해 김정은 체제 하의 신냉전, 경제정책, 시각예술, 여성 담론, 선전 담론을 분석함. 또한 북한의 자기재현이 북한과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에서는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함.
- 두 차례에 걸쳐 중간결과물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학술발표를 개최했으며, 공동연구자들의 해외 학술교류 및 필드리서치를 통해 연구의 외연과 학술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연구의 문제의식을 심화하였으며, 성과를 담아 연구내용의 전문학술지 게재를 진행하고 있음.

3. 사업 성과

- 연구성과를 다음과 같이 4편의 논문으로 작성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자기재현”이라는 제목으로 KCI 학술지에 특집으로 게재할 예정임 : (1) 북한에서 ‘민족’의 자기재현에 대한 연구: 전통적 재현의 한계와 새로운 재현의 부재 사이에서 (2) 김정은 시대의 국가균형발전전략 평가: 성과와 한계 (3) 뉴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북한식 정치 축제의 현황과 의의 (4) 재현의 재현을 보는 시선: 중국인이 보는 북한식당과 ‘북한적인 것’.
- 연구 진행과정에서 확보된 연구진과 연구자 네트워크를 토대로 향후 연속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1. 사업 배경

□ 개요

- 사업명: 2024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 기관명: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 사업비: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북한에 대한 한국사회의 주된 관심은 표면적인 정치·군사적 사안에 치우쳐, 북한사회의 내밀한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음.
 - 2012년 공식적으로 등장한 김정은 체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사회주의 문명국을 강조하면서 과거와 달리 ‘분권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함. 구체적으로 포전담당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과학기술 우선정책 등을 실시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미·중 간 전략경쟁 심화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북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예전에 비해 크게 약화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신냉전’ 이슈가 등장했으나, 여전히 세계의 관심은 유럽과 중동에 집중되어 있음. 러-우 전쟁 이후 상황은 이전 냉전 상황과 동일하지는 않기에 ‘신냉전’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움. 글로벌 상호의존성은 여전히 유지되며, 이질적인 이데올로기의 각축도 잘 표출되지 않음.
 - 다만 탈냉전 이후의 질서에 일종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음.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에 적대적이었던 팩스 아메리카나의 질서가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중, 북·미, 북·러 간 관계도 새롭게 재편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북한과 국제적 맥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의 도입이 절실함. 사회과학적 인문학적 접근을 동시에 진행하여 구조, 행위자, 담론, 문화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음.

○ 목적

- 본 연구는 신냉전 시기 북한 김정은 체제의 변화 양상을 ‘자기재현 (self-representation, 자기표상)’이라는 분석 개념을 도입하여 해명하고자 함. 자기재현은 “스스로(self)가 다시(re) 현전케(presentation)하는 것”을 뜻하는 개념임.
- 한 사회의 시대상과 세계관은 다양한 형태(담론, 영상, 건조물, 집합행위 등)로 그 흔적을 남김. 자기재현은 일면 ‘프로파간다(propaganda)’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있음. 프로파간다는 통치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피통치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행위’에 방점을 두고 있음. 하지만 자기재현은 ‘피통치자’의 감각과 해석들도 재현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함으로써 통치 집단의 통치 정당성 확보 과정을 중시함. 따라서 자신(국가, 집단, 가족, 개인)의 정체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왜’ 표상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이러한 분석 개념과 문제의식을 적용하여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2018년부터 하노이 노딜, 코로나 사태, 신냉전의 양상이 고조되는 2024년까지의 북한의 담론, 통계자료, 영상매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자기재현 전략을 입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함.
- 구체적으로 신냉전, 경제정책, 시각예술, 여성 담론, 선전 담론을 분석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북한에 의한 자기재현이 북한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국가, 언론, 사회구성원)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재현이 외부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재현의 재현)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재현의 대외적 ‘효과’까지 파악하고자 함.

2. 사업 내용

□ 사업 추진 내용

- 본 사업은 사회학, 경제학, 미술사, 지역학 등 여러 다양한 전공분야 연구자들 간의 협업을 통해 신냉전, 경제정책, 시각예술, 여성 담론, 선전 담론을 분석하고, 북한에 의한 자기재현이 북한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국가, 언론, 사회구성원)에서는 또 어떻게 재현되는지(재현의 재현)도 연구함.
- 공동연구자 5명이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연구진행 단계에 따라 중간 결과물들을 상호공유하고 검토 수정함.
- 공동연구자 해외 학술교류 및 필드 리서치
 -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中国社会科学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 공동 워크숍.
 - 공동연구자 5인이 중국사회과학원을 방문하고 워크숍을 실시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 정세에 대한 양국 학자들의 견해를 최대한 자유롭고 폭넓게 교환하였음. 워크숍을 계기로 한·중 상호 간의 한반도와 북한의 정치사회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상호방문 등을 통해 학술적 교류를 심화하기로 함.
 - 공동워크숍 참석자: 김백영(센터장), 김란(아시아연구소), 노현종(송실대), 조민주(덕성여대), 홍순직(아시아연구소), Dong, Xiang Rong (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y,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Li, Tian Guo (NIIS CASS), Jin, Ying Ji (NIIS CASS), Wang, Xiao Ling (NIIS CASS), Li, Cheng Ri (NIIS CASS), Li, Yong Chun (NIIS CASS), Tang, Xiao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Zhang, Jia Wei (CASS)
- 통일평화연구원 연합학술대회 발표
 -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동연구자 5인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 관련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학계 및 대중에게 공유함.
- ‘김정은 시대 자기재현의 안과 밖’ 학술회의(결과보고) 개최 예정
 - 2025년 3월 말 공동연구자 5인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주제의 국내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과 감수를 진행할 예정. 향후 연구의 확장적 발전을 위한 여러 조언과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차후 연구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예정.
 - 관련 연구자들과 관심 있는 대중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구 아젠다의 핵심을 학계 및 대중에게 공유할 예정.

○ 연구단 연구내용 학술지 게재 추진 (2025년 9월 출판 예정)

- 공동연구자 5인 논문을 2025년 9월 특집논문으로 『경제와 사회』 가을호에 게재 추진.

□ 일정별 추진 사항

일 정	추진 내용
2024.5.~2024.6.	○ 연구진 전체회의 (2회) : - 연구일정 공유 - 연구진별 자료와 분석의 상호검토 ○ 연구진 개인별 기초연구 진행 - 자료 수집 및 초고 집필
2024.7. 말	○ 참여 연구진 중간보고(세미나) - 각 분야별 연구의 종합을 통한 자기재현 분석들의 타당성과 유효성에 대한 토론
2024.8.~2024.9.	○ 연구진 개인별 분석내용 심화 ○ 연구진 회의 (1회) - 연구진별 자료와 분석의 상호검토
2024.10.	○ 중국 필드조사 - 현지자료 수집 및 워크숍
2024.11.	○ 논문 집필 ○ 통일평화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 참여 연구진 연구 발표
2024.12.~2025.02	○ 결과보고서 작성 ○ 학술대회(결과보고) 준비
2025.03.	○ 학술대회(결과보고) 개최 - 참여 연구진 연구결과 대중 공개 발표 - 전문가 초청 토론 ○ 참여 연구진 논문 게재 일정 논의
2025.04.~2025.06	○ 원고 수정 및 집필 ○ KCI 학술지 투고 (6월 15일)

□ 참여 인력

○ 책임자

성 명	대 학	학 과	직 급
김백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사회과학대학	동북아시아센터/ 사회학과	센터장/ 교수
연구소(원)	구 내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아시아연구소			

○ 주요 참여 인력

성 명	소 속	직 급	이 메 일
김 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객원연구원	
노현종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전임연구원	
조민주	덕성여자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홍순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방문연구원	

3. 사업 성과

□ KCI(우수등재) 학술지 특집논문으로 학술논문 4편 게재 예정(2025년 9월)

※ 자세한 내용(ex. 저널명, 학술회의명(참가 및 개최 날짜 포함), 결과물 등)을 기재

○ 『경제와 사회』 (2025년 가을호) ‘특집’ 학술논문 4편 게재 예정

- 공동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학술논문 형식으로 하여, 2025년 특집논문으로 게재 추진.

- 민족 개념의 재현, 국가발전전략의 재현, 미디어의 정치행사 재현, 중국의 북한식당의 북한적인 것 재현 등 북한의 자기재현의 양식의 변동을 고찰하는 3개의 논문과 북한의 재현을 수용하는 중국의 시각을 고찰하는 1개의 논문을 작성할 것임(제안서 제출: 김백영).

· [제1논문] 북한에서 ‘민족’의 자기재현에 대한 연구: 전통적 재현의 한계와 새로운 재현의 부재 사이에서 (노현종)

· [제2논문] 김정은 시대의 국가균형발전전략 평가: 성과와 한계 (홍순직)

· [제3논문] 북한의 뉴미디어 정치 축제의 현황과 의미(조민주)

· [제4논문] 재현의 재현을 보는 시선: 중국인이 보는 북한식당과 ‘북한적인 것’ (김란)

○ (내용입력) 각 연구의 축약본 첨부[별첨]

□ 학술회의, 워크숍 개최

○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공동 워크숍 (2024년 10월 18일)

- 제목: 동아시아 정세와 한반도

- 일시: 2024년 10월 18일, 10:00-12:00

- 참석: 김백영(센터장), 김란(아시아연구소), 노현종(승실대), 조민주(덕성여대), 홍순직(서울대), 이진선(UN Women), Dong, Xiang Rong (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y,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Li, Tian Guo (NIIS CASS), Jin, Ying Ji (NIIS CASS), Wang, Xiao Ling (NIIS CASS), Li, Cheng Ri (NIIS CASS), Li, Yong Chun (NIIS CASS), Tang, Xiao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Zhang, Jia Wei (C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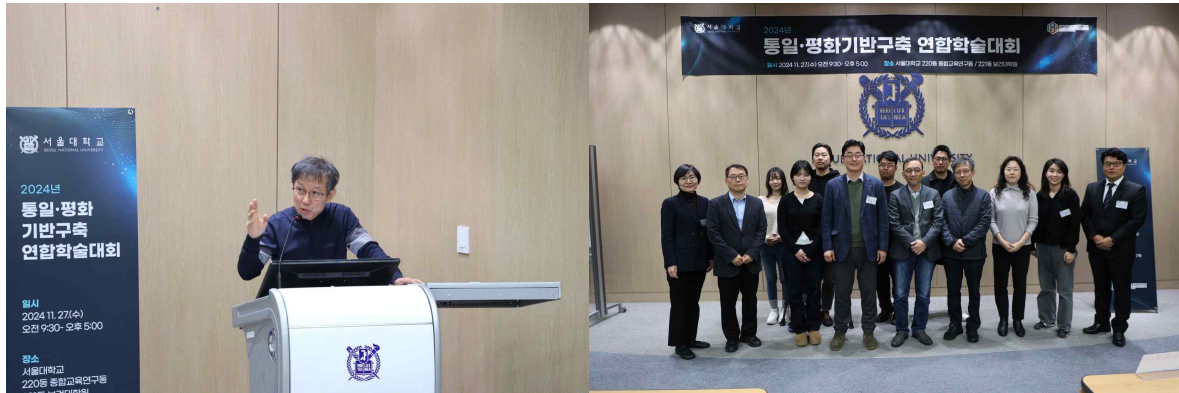
- 회의 내용: 공동연구자 5인이 중국사회과학원을 방문하고 워크숍을 실시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 정세에 대한 양국 학자들의 견해를 최대한 자유롭고 폭넓게 교환하였음. 워크숍을 계기로 한중 상호 간의 한반도와 북한의 정치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상호방문 등을 통해 학술적 교류를 심화시키기로 함.



○ ‘통일·평화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2024년 11월 27일)

- 제목: 신냉전 시기 김정은 체제의 자기재현과 그 효과
- 일시: 2024년 11월 27일, 13:30-15:00
- 참석: 김백영, 홍순직, 조민주, 노현중, 김란 등
- 회의 내용: 공동연구자 5인 분석내용에 대한 중간보고 및 분석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대중 피드백





○ ‘김정은 시대 자기재현의 안과 밖(가제)’ 학술회의(결과보고) 개최 예정

- 제목: 김정은 시대 자기재현의 안과 밖(가제)
- 일시: 2025년 3월 말
- 참석: 김백영, 홍순직, 조민주, 노현종, 김란 등 공동연구자, 김태운, 박철현, 황진태, 임수진 등 협력연구자 등
- 회의 내용: 공동연구자 5인 분석내용에 대한 중간보고 및 분석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대중 피드백

□ 관련분야 기여도

○ 학술적 기여

- 그동안 북한에 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군사적 분야 위주로 연구되던 북한의 통치와 일상의 매개를 재현 개념으로 새롭게 제시·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문화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제시함.
- 학술회의, 전문가 초청세미나 등을 통해 북한 재현 문제에 관한 연구내용과 성과를 학계 및 대중에게 확산함.
-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전문학술지에 특집논문의 형태로 공동 투고함으로써, 연구성과를 학계에 공유하고 관련 연구의 진전에 기여함.

○ 북한 사회문화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 북한 사회-도시-경제-문화 관련 연구자들로 연구진을 구성해 학제간 논의를 진행하였고 연구자들 간의 학제적 융복합 네트워크를 형성에 기여함.
- 공동연구자 5인 외 외연을 확장하여 역사, 정치·외교, 건축, 미술 등을 포함한 외부 협력연구자들과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책 출간을 출발점으로 상호 협업과 소통을 추진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추가적인 네트워크 형성할 계획임.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계획단계에서의 과제구성 및 진행의 적절성,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 비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북한을 고찰하는 시도는 드물었던 바, 북한의 자기재현이라는 새로운 시각과 주제로 한 본 연구사업은 북한 연구자들에게 연구계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음.
- 특히 북한 연구를 정치학, 경제학, 시각예술, 여성학, 사회학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함으로써 다층적·다면적 분석을 시도하여 변화하고 있는 현 단계 북한 통치와 사회문화의 역동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음.

○ 사업의 효율성

- ※ 사업의 효율성: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 정도
- 초기 연구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북한 내부뿐 아니라 외부자인 중국에서의 북한재현까지 포괄하면서, 해외(중국사회과학원) 학술단체 방문과 대담으로 연구의 성과가 이어지게 되었음.
- 이는 사업에 참여한 공동연구자들의 연구의지 및 학제간 연구활동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연구팀과 동북아센터가 주최하는 세미나, 워크숍,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관련 연구의 학계 및 대중들에게 확산시킴.

○ 사업의 영향력

- ※ 사업이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효과 평가
- 김정은 시대 북한 통치와 문화의 성격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규정함으로써, 북한사회의 성격 변화에 대한 학계 내외부의 관심 제고.
- 여러 학문분과의 연구자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다학제적 연구활동 및 연구결과물을 도출함.

○ 사업의 발전가능성

- ※ 사업 종료 이후 사업의 효과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자기재현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가능 한 분석 시각으로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전문가들을 연구팀에 합류할 수 있음.
- 향후 사업 공동연구자들의 연구내용과 사업단 외부 협력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종합 편성한 단행본 출판 고려 중(2025년 하반기 예정).
- 현재 보유한 연구자 네트워크 및 축적한 방대한 자료를 통해 다차년도 연구사업으로 지속·발전시킬 잠재력 충분.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향후 북한의 대외적 재현을 한 국가(중국)로 한정하였지만, 향후에는 여러 나라 연구자를 초청하여 연구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향후 계획

- ※ 향후에도 본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 사업을 확장·변경·발전시킬 것에 대한 잠재적인 계획을 작성
- 북한이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 어떻게 재현되는지, 북한은 어떻게 자신이 재현되기를 기획하는지 등의 주제로 좀 더 다년간의 장기연구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

☐ 건의사항

- ※ 사업의 진행,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하여 통일평화연구원 혹은 학교 본부에게 전달할 건의 사항을 기재
- 연구사업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을 고려, 향후 사업에서는 해외 사례 연구가 필요할 경우 등 사업특성에 따라서 연구 결과 발표 및 제출 기한을 유연하게 조정 가능할 수 있기를 건의함.

6. 성과 관련 지표

☐ 대표 사업 실적

- 연구논문 네 편, 전문학술지 특집논문으로 게재 예정
 - 『경제와 사회』 2025년 가을호 특집논문 게재 추진(2025년 9월)

☐ 성과 자율 지표

- ※ 예: 해당 사업이 연구사업의 경우 사업 시작일(2024년 4월 1일) 기준 2년 이내 사사표기 된 논문 게재 또는 게재 예정(혹은 단행본 예정) 00건,

비연구사업의 경우 사업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사사표기 된 언론 홍보 00건
혹은 DB 자료 00건 등

※ 성과 지표의 형식 및 내용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북한 체제의 자기재현 연구단’ 네트워크 구축

-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를 통한 북한 체제의 자기재현 연구팀을 구축, 북한 재현 문제 연구의 지속 확장을 위한 기초 수립.

○ 북한 자기재현에 대한 원전 중심 자료 구축

- 연구자들이 참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원전 자료를 개략적인 아카이브 형태로 비공개 구축.

- 자료 특성상 일부 공개 불가한 사안이 있어 연구사업단 개별 USB 보관으로 대체.

○ 사사표기 된 논문 게재 예정 4건

- 관련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학술논문 네 편 작성.

○ 단행본 출판 계획

- 공동연구자들의 연구성과와 사업단 외부 협력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종합 편성하여 단행본 출판 추진 (2025년 하반기 예정).

[별첨]

□ 제1논문

북한에서 ‘민족’의 자기재현에 대한 연구: 전통적 재현의 한계와 새로운 재현의 부재 사이에서

노 현 중

I. 들어가며

남북관계 악화와 분단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남북 양측에서 민족의 위치는 약화하고 있다. 또한 ‘민족’을 기초로 삼아 평화로운 한반도 질서를 형성하려던 시도도 현재 사실상 좌초된 상황이다. 특히 2024년도부터 북한의 김정은과 최고지도부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면서 ‘민족’의 위치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기존의 민족 및 통일 담론과 대치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은 김정은이 10여 년의 통치기간 동안 남한과 미국 등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민족 및 통일과 관련된 상징을 해체하였다.¹⁾ 하지만 지도자가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기초한 체계적인 논의는 현재까지도 등장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가 큰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면, 당과 대학의 지식인들은 핵심논지를 유지하되 이를 보충하거나 발전시키는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관련 사항을 인민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이에 기초한 여러 문화, 예술 작품들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하지만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언사만 언론에 등장하고 있으며, 법률적인 제도화 가능성만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아직 ‘적대적 두 국가’와 혈통, 역사, 정치적 주체, 선대의 유훈, 통일이 복합적으로 내재된 ‘민족’을 대체할 수 있는 논리와 이를 재현할 수 있는 매체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체제와 국가의 유형과 상관없이 ‘민족’이라는 요소는 사회의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접착제이다. 분단구조 하에서 어느 한 편을 공식적으로 잘라 내버리는 것은 매우 큰 어려움이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상당한 모순과 추상성을 지닌 이데올로기를 일상의 언어로 전환하여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것 역시 무척 어려운 작업이다.

본 연구는 ‘민족’을 둘러싼 북한의 ‘공식담론’과 ‘자기 재현’의 관계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미디어학과 비판사회학에서 주로 논의되는 ‘자기재현’은 미디어를 통해 ‘재구성된 현실’이 그 시대상을 어떻게 묘사하며, 어떠한 대중의 염원을 담고 있으며, 매체를 통해 어떻게 담론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일반적인 국가 혹은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과 같이 당과 국가가 직접적으로 영상매체와 예술의 생산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자기재현’과 ‘선전’ 양자가 동일하게 간주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재현’이 여전히 유용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주민들을 위한 선전 역시 익숙하고 친숙한 일상의 언어로 재구성되어야지만 그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 최고지도자의 연설문, 조선로동당이 출간한 다양한 저작들을 북한의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에 정치권력이 창출하고자 하는 비전은 보다 친숙하고 일상적인 형태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통치담론과 미세하게 다른 면모를 재현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집단적인 토의를 통해 작품 제작이 이루어지며, 작가들은 당의 공식적인 노선과 배치된 사항을 담을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주민

1)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철회하고, 조국통일 3대 현장 기념탑(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해체하였다고 전해진다.

들의 실제 생활과 일상의 현실들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통치담론이 담지 못한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이 반영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첫째, 사회주의 시기의 민족개념의 변천과 재현 양상을 다루어 볼 것이다. 북한의 민족개념에는 ‘네이션’과 ‘에스니’가 혼재되어 나타나며 양자 모두 ‘김일성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변모했으며,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둘째, 사회주의 혼란기의 민족 개념과 재현 양상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1980년대 말 급변하는 한반도 질서 속에서 조선 민족제일주의가 등장하였으며, ‘민족’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셋째, 김정은 시기의 ‘민족’의 변천 과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그의 집권 초기에는 민족의 ‘혈연(에스니)’적 측면 보다는 ‘국가(네이션)’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혈연(에스니)’을 해체한 것은 아니었으며, 의례적으로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2018년 남북대화기에는 ‘혈연(에스니)’의 측면이 강화되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매우 축소된 ‘민족(네이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축소된 민족이 북한의 역사와 분단구조 속에서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의 재현 가능성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II. 사회주의 시기의 민족과 자기재현

북한에서 지식과 다양한 통치 담론은 개인이 아니라 당의 이론가의 중지(衆智)를 통해서 형성된다. 따라서 ‘민족’과 같은 다소 광범위한 학술적인 개념은 학술의 장에서 독립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및 정세의 변화를 인지한 상부의 허가를 통해서만 발전 및 변모한다. 북한에서 민족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혼재하면서 변모하였다. 1) 스탈린이 제시한 고전적 ‘민족’ 2) 한반도의 역사적 맥락과 전통 속의 민족 3) 남북한 분단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포함하는 민족 4) 주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김일성 민족과 조선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 요소들이 상이한 비율로 결합하여 표출된다(이 사항은 본고 3장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1. 사회주의 북한에서의 ‘민족’

비록 북한에서 ‘네이션’에 해당하는 개념을 어떠한 이유로 ‘민족’으로 번역하였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학계에서 ‘네이션(Nation)’의 개념과 번역을 둘러싼 논의는, 북한 연구에서 한층 더 복잡한 형태로 표출된다. 먼저 ‘네이션’의 경우 대한민국 학계에서 ‘국민’과 ‘민족’으로 동시에 번역된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경우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권리가 강조된다. 민족의 경우에는 정치적 권리가 조금 더 약하게 존재하며, 사회구성원의 종족 및 문화 역사적 측면이 보다 강조된다. 이에 민족은 정치적 함의를 지닌 ‘국민’과 혈연적, 문화적 공동체를 내포하는 ‘종족(ethnicity)’의 중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²⁾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황에서 ‘민족’은 ‘종족’ 이상의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내선일체’, ‘동조동근’을 주장하며 급진적 동화주의를 실시하였던 일본의 식민통치 속에서 ‘민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동시에 국가와 주권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국민’을 논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 모두 분단 상황에 속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민족’을 강조하면서 엄청난 정치적 함의가 투입되었다.³⁾ 북한에서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권에서 민족문제를 다룬 가장 중요한 저작인 스탈린의 *Marxism and National Question*은 1950년 『맑스주의와 민족문제』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표면상 서구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권리를 지닌 ‘네이션-국민’은 사회주의권의 ‘인민’, ‘공민’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2) 장문석, 『민족주의 길들이기』 (서울: 지식의 풍경, 2006), p.10.

3) 박찬승, 『민족·민족주의』 (서울: 소화, 2010), p.23.

실제 정치적 권리의 주체는 ‘공산당’ 이거나 ‘수령’ 이라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적어도 ‘국민’에 해당하는 개념 자체가 북한에는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한과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북한에는 ‘네이션-민족’은 ‘종족(ethnie)’ 기초하며 ‘항일투쟁’, ‘조국해방전쟁’, 미제강점으로부터 전 국토와 민족을 해방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북한은 실제로는 건국 초기부터 ‘민족’과 ‘민족주의’를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⁴⁾, 계급적 모순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보편적 원칙을 무시할 수 없었다. 사회주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것은 바로 스탈린의 민족 개념이었다. 스탈린은 민족이 인종적이거나 부족적인 것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구성된 인간의 공동체라고 보았다. 그리고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로 “공통의 언어, 공통의 영토, 공통적인 경제생활, 심리적 유대에 기초한 공통문화”를 제시하였다.⁵⁾ 스탈린의 개념에 따르면 민족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관계였다. 스탈린은 민족을 영속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성장할수록 현 시점의 자본주의 단계의 민족주의는 약화 될 것이라고 보았다.⁶⁾ 북한은 일찍이 스탈린의 저서를 번역하였고, 이를 이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보충자료도 출간하였다. 소련에서는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매체가 많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노벨문학상과 스탈린문학상을 동시에 수상하였던 미하엘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강』에는 혈통적 민족의 범위를 뛰어넘는 노동자들의 보편적 연대가 묘사된다.⁷⁾ 하지만 북한에서는 스탈린의 민족개념을 활용한 문학작품이나 예술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즉 스탈린의 논의는 적극적으로 재현되지 못하였다.

스탈린의 민족개념을 수정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민족)’과 ‘민족해방’을 구분하였다. 북한이 사회주의 강국인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독자성을 확보한 1973년에도 민족주의는 매우 부정적인 어조로 소개되었다. 북한의 정치사전은 “민족주의는 언제나 부르조아적성격을 띤다. 민족주의자들은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모욕하며 민족들사이의 불화와 알뜰을 고취함으로써 민족내부의 계급적대립을 감추고 로동계급이 자기의 독자적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방해하며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정책과 식민주의정책을 합리화하는데 복무한다”⁸⁾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민족주의’라는 용어에는 비판적이었지만, ‘민족해방’과 ‘민족통일’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북한에서 ‘해방’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에, 사회주의적 보편 및 국제운동과 애국주의적 민족적 특수성을 매개할 수 있는 용어로 활용되었다.

1972년 5월 김일성이 남한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만나 통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을 논의했다고 주장하는 담화에서 민족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표징은 언어와 문화생활의 공통성입니다. 한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말과 글이 다르고 문화와 풍습이 다르면

4) 가령 1946년 북한 지역에서의 토지개혁은 단순한 지주 계급 청산이 뿐만 아니라 일제가 구성해 놓은 사회적 질서를 해체한다는 점에서 민족적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토지개혁의 성공은 당시 남한의 정당성에 타격을 주었다.

5) Joseph Stalin, *Marxism and the National Question* (London: CPGB-ML), p.11.

6) 앞의 글, p.41.

7) 이러한 입장은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 “그건 분명히 그래. 전쟁은 옛날부터 있었고, 온 세계 국가들이 지금 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면 언제까지 가도 전쟁은 그치지 않아. 하지만 만일 모든 국가에 노동자 정부가 서면 전쟁은 없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안돼. 지금 정부 따위는 하루빨리 관 속에 처 넣어버리는 거다! 빨리 그렇게 해야 돼! 독일에도 프랑스에도, 모든 곳에 노동자와 농민의 정부가 선다. 그렇게되면우리가 싸울일이 뭐 있겠나?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싸움은 없어져 버리지.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살게 되는 거야 정말로” > 또한 이 소설에는 1차 대전 당시 제국주의 독일과 짜르 러시아에 의해 징집된 노동자 출신 병사들이 민족과 조국을 뛰어넘어 사회주의적 연대를 느끼는 장면이 등장한다. < “당신은 나를 도망치게 해 주는 건가?……오, 지금이야 나는 알아차렸다! 당신은 러시아의 노동자지? 나와 마찬가지로 사회민주당원이야? 그렇지, 자네? 오! 오! 정말로 꿈같다……형제,, 내가 어찌 잊겠는가?……지금 할말이 생각나지 않네만 ……당신은 이상한 젊은이다……나는……” 알아듣기 힘든 귀에 선 말의 격렬한 흐름 속에서 발레트는 단 한미다, ‘사회민주당원이야?’ 하고 묻는 말만을 알아들었다. “응, 그렇다네. 나는……사회민주당원이네. 어서 도망치게…… 잘 가게, 형제. 새 출발을 하게!” 느낌으로 서로 이해하고, 그들-키가 크고 잘생긴 바바리아인과 키가 작은 러시아 병사가 서로 마주보았다. 숲 근처에 다가오고 있는 산병의 발소리가 철벽철벽 들어왔다. 바바리아인은 독일어로 소곤거렸다. “요요 다음 전쟁 때에는 한 참호 안에서 지내게 될 거야. 그렇잖나, 동지?” 이렇게 말하고 커다란 희식 짐승 같이 재빨리 밖으로 나갔다. > 미하엘 솔로호프, 맹은빈 역 『고요한 돈강 I』 (서울: 동서문화사, 1987), p.516,

8)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430.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⁹⁾ 이 저서는 1982년 평양에서 가장 먼저 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에도 김일성은 혈통을 직접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다. 또한 김일성은 1990년 8월 18일 범민련 연설에서도 민족주의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생물학적인 ‘핏줄’ 보다는 ‘동포’라는 사회적 함의를 지닌 용어를 사용하였다.¹⁰⁾

그리고 정치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민족개념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가령 김정일은 그가 18살인 1960년에 김일성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스탈린의 민족개념을 비판하고 혈통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8살이라는 그의 나이와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는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글이 1999년에 출간된 것으로 보아 남북대화가 본격되는 시점에 이 개념을 의도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김정일은 “쓰팔린은 민족문제를 연구할 때 중앙집권제가 강하였고 노예사회나 봉건사회에서 이미 통일국가를 형성하였던 동방나라들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민족을 이루는 기본 징표는 피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 가운데서도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됩니다”라고 언급하였다.¹¹⁾ 이는 ‘민족’이 자본주의 단계에서 부르주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형성된 허구의 관념이 아니라, 이전의 한반도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부터 지속된 실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1933년 이광수는 조선민족론에서 “조선민족이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대단히 단일한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인 된 이는 누구나 분명히 의식하여 일 점의 의심도 없는 바다”라고 언급하였으며¹²⁾, 이는 당시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객관적 사실로 여겨져 있었다. 특히 ‘조국해방전쟁’ 시기의 대의명분을 민족해방으로 삼았고 이를 계속하여 강조하였기에 학술적 담론과는 별개로 혈통적 민족에 대한 인식과 전통은 북한 주민들에게 확고하게 남아있었다. 정리하자면 냉전시기 북한에서 민족은 혈통적, 정치적 함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종족(ethnie)’의 성격은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었다.

2. 한반도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족’과 사회주의적 해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민족을 계급에 선행하여 전면적으로 내세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현실 사회주의 국가 역시 기본적으로 ‘민족국가’의 형태를 지녔고, 자국의 역사, 전통, 그리고 우수성에 대한 개념은 확립해야만 했다. 이에 북한은 민족사를 사회주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민족에 대한 정서적 일치감을 형성하며, 동시에 과거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주의 단계에서야 비로소 선조들의 희망이 실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선말기의 실학과와 신윤복에 대한 북한의 해석을 예로 들 수 있다. 가령 북한은 실학파의 개혁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봉건세력과는 다른 새로운 집단이라고 보았다. 특히 ‘경자유전’의 원칙을 내세웠으며, 농민들의 협동농업을 강조했다는 점을 기초로 하여 이 역사를 사회주의를 향한 민족적 움직임으로 해석하였다. 물론 봉건세력과 양반계급의 한계점은 있었으나, 사회주의적 가치와 공명할 수 있는 민족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실 사회주의 권에서 이러한 방식의 역사해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가령 동독에서는 루터탄생 500주년 기념행사는 호네커 서기장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졌는데, 역사적인 인물을 사회주의적으로 재해석하여 체제에 대한 지지도를 올리기 위함이었다.¹³⁾

9) 김일성,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 대표들과 한 담화 1972년 5월 3일, 11월 3일』 (평양: 삼학사, 1982), p.2. 동일한 원고는 2002년, 2015년 조선로동당 출판사에서 재출간되었다.

10) 김일성,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8월 18일” 『김일성전집 8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pp.360-377.

11) 김정일,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9), p.2.

12) 박찬승, 『민족·민족주의』 p.111에서 재인용.

13) 이처럼 루터가 격상된 원인은, 토마스 뮌처의 혁명적이고 투쟁적인 정신이 사회에 받아들여져 반정부 시위의 기폭제가 되는

남한에서는 신윤복의 작품이 ‘에로티시즘’을 표출하고 있으며, 조선후기의 쾌락주의적인 시대상에 따른 풍속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¹⁴⁾ 반면 북한의 미술사가들은 에로티시즘의 표출에 동의하지 않으며, 당시 풍속과 양반 및 승려에 대한 작가의 통렬한 풍자와 비판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강명석과 리명수는 “사실주의적 수법을 지향한 그의 작품들에서는 부패타락한 봉건통치배들과 승려들을 비롯한 사회기생층들의 위선과 패륜패덕행위를 신랄히 비난, 조소하고있으며 하층인민들의 생활을 다방면적으로 형상하여 그들에 대한 동정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이와 같이 신윤복은 독특한 화풍으로 우리 나라 회화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기었다. 그는 작품들에서 부패한 봉건통치배들의 패륜패덕이 성행하던 당시의 사회형편을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지배계급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으며 도화서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처럼 화가 신윤복은 꾸준한 탐구와 사실주의적 창작태도로써 당시 근대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민족회화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¹⁵⁾고 서술하였다. 즉 신윤복을 통해 보다 근대적인 사실주의적 화풍이 등장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개인의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계급’으로 그의 세계관을 축소하였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경우에는 양반층이라는 봉건적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인민들과 함께 일본의 침략자를 물리친 ‘애국명장’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조선수군의 용맹함의 기상을 조선인민군이 이어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안중근 의사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제작된 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에서는 그의 용감하고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 부분의 내레이션에서 “안중근은 열렬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국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옳은 지도 사상을 내세우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을 깨우치고, 바로 굳게 묶고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조국 광복에 옳은 진리를 밝히고 전체 인민을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으로 이끌어내갈 새로운 여명이 밝아 올 날은 아직도 멀었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이 안중근의 염원을 완성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계급과 민족의식이 결합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혹은 애국주의)’라고 명명하였다.¹⁶⁾ 즉 계급에 기초하여 민족사를 보고 있으며, 민족의 염원들은 북한에 의하여 수령을 통해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구현되었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이전의 역사 및 전통을 현재와 통합한다.

3. 남북한 분단 상황 속의 ‘민족’

북한은 한국 전쟁 이후에도 분단을 매우 임시적으로 간주하였다. 지금의 시각에서 돌아보면 한국전쟁은 분단이 준(準)영구화된 사건이었지만 당시에는 여전히 통일의 희망과 가능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남아 있었다. 비록 어떠한 의미있는 성명서와 합의문이 도출되지는 못했지만,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한국의 통일문제가 남북 및 국제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었다. 주체사상의 시초로 여겨지는 김일성의 1955년 연설문에서도 분단을 매우 임시적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1955년 김일성은 조국통일과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을 선언한 김일성의 4월 테제에는 ‘민족’과 ‘인민’이 혼용되어서 사용된다.

“따라서 우리 혁명은 한편으로는 반 제국주의적 민족 해방의 과업을 수행하며 다른 편으로는 남반부에서

것을 사회주의 통합당이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당시 토마스 뮌처의 초상이 5마르크 화폐에 실려 있었을 만큼, 동독에서도 상징성이 큰 인물이었다). 또한 보다 저명하고 존경받는 루터의 이미지를 사회주의와 연계시켜 당의 외연을 넓히기 위함이었다. Robert Goeckel, “The Luther Anniversary in East Germany” *World Politics* Vol. 37 Issue No. 1 (1984), pp.112-133.

14) 안휘준, 『한국 회화사 연구』(서울: 시공사, 2000), pp. 658-661.

15) 강명석, 리명수, 『우리 민족의 옛 미술가들』(평양: 평양출판사, 2009). pp.199-203.

16) 구체적으로 “부르조아 애국주의와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과학적 세계관과 결합되지 못하고 민족적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했으며 제도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결합되지 못한 과거의 애국주의와도 근본적으로 구별된다...사회주의 애국주의의 본질적 특성은 그것이 인민적 사상 감정이며 로동 계급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계급적 사상 감정이며 당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당적 사상 감정이라는데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최성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6). pp.28-29.

아직 지주의 압박과 착취를 받고 있는 광범한 농민들을 해방할 반 봉건적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오늘 남반부의 제 조건, 특히 남반부가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고 있는 형편에서 우리 혁명은 간고하고도 장기성을 띤 전 인민적 투쟁을 통하여 완수될 것이다.”¹⁷⁾

이처럼 ‘인민’은 사회주의 북한(북조선)의 사회구성원을 지칭하고, 민족은 대한민국(남조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같은 분단국가인 남쪽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특히 1960년 4.19 혁명이 발생한 이후인 8월 김일성은 남북연방제를 제시하였다. 외세의 간섭없이 남북총선거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적인 방편으로 ‘연방제’ 실시를 제의하였다. 즉 두 정부의 독자성을 유지하되, ‘최고민족위원회’가 남북의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북한은 전후 복구 사업과 천리마 운동 성공한 이후, 주도권을 쥐고 자체적인 통일담론을 형성하고 남쪽을 압박하였다.

이 시기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쥔 북한이 민족담론과 통일담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작한 대표적인 노래는 ‘통일열차 달린다’이다. 이 노래는 해방 이후 현대문학 기자로 활동하다가 1948년 월북한 박산운씨가 가사를 지었고, 모영일이 작곡하였다. 아래의 가사에는 강력한 ‘민족지향’이 나타난다. 1절의 가사는 아래와 같다.

통일열차 달린다 부산행 열차 달린다
통일열차 달린다 호남행 열차 달린다
칠백리 락동강반 생명수 끌어주고
새보습 우렁우렁 호남벌을 번져주세
천리마 트랙토르 기중기도 달린다
천리마 트랙토르 기중기도 달린다
질풍같이 물고가세 통일의 무쇠철마
차창밖에 어뜩어뜩 어뜩 어뜩어뜩 어뜩어뜩
남녘형제 반겨온다.



이 노래에서 흥미로운 점은 가사에서 직접적으로 ‘민족’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960년대 혈통적 의미의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주의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남북한이 모두 ‘분단국’이고 이 노래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상징하고 있기에 당시의 사회주의 노선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 역시 단일 민족을 유지하고 있었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충분히 민족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철도는 근대성의 상징이자, 동시에 집단적인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다. 철도는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고 있으며, 개인이 아닌 집단이 선로를 따라 움직인다. 이 노래는 철도의 역동적인 힘, 강의 생명, 풍요로운 농업, 그리고 형제애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산과 호남을 명시하여 남쪽의 공간과 북쪽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합일되는 점을 강조하였다. 민족과 영토의 연계성은 남한에서도 발견된다.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철도중단점’과 단절을 민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지난날 여기 임진강 철교를 건너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목포에서 나진까지 반도 삼천리를 오르내리던 철마의 발길이 이곳 임진강변에 멈추게 되었으니 북으로 달리고 싶은 철마의 기적소리는 바로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절규인 것이다.” 즉 철도는 남북 모두에서 영토와 민족을 상징하는 도구였으며, 동시에 분단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시기 작품에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직접적인 칭송을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당시의 문예노선을 반영한 결과 해석된다. 실제로 1960년대 ‘천리마운동’ 시기의 문학들을 살펴보면 김일성에 대한 노골적인 우상화가 등장하지 않는다. 가령 천리마시기를 대표한 소설인 김병훈의 『길동무들』에서는 근대적인 개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노동계급’이 강조된다. 작가가 칭송한 것은

17) 김일성,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1955년 4월』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4.

‘당’, ‘국가’, ‘공동체’였다. 도덕적이고 성실한 노동자를 이상화하는 장면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70년대 국내외 정세가 바뀌면서 민족과 수령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선언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의 움직임은 상이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베트남 철수 및 닉슨독트린, 미중관계 개선을 기회로 여겨 적극적으로 대화 공세를 펼쳤다. 실제로 북한은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적 통합을 모색하였으며¹⁸⁾, 반면 남한은 이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창구로만 인식하였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통해서 김일성주의가 확립되었고, 후계자도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민족의 개념을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문화,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으로 재정의하였다.¹⁹⁾ 기존의 스탈린의 개념에 ‘혈통과 문화’를 추가한 것이다. 이처럼 민족 개념이 재정립된 까닭은 사회주의권 내에서 북한의 입지가 상승하였고, 주체를 통해 민족과 사회주의간의 1 관계를 나름의 박식으로 정립하였던 까닭이다. 그리고 김일성 유일체제가 확립된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변화가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박정희 정부가 북한의 여러 제안을 물리치는 ‘6.23 조치’를 선언한 이후 북한은 ‘조선은 하나다’라는 노래를 발표하였다.

수령님 밝혀주신 오대강령 화불을 따라
자주의 한길로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반만년의 피줄을 이어온 우리는 하나의 민족
백두산의 줄기가 내리여 이 땅은 하나의
강토

갈라져 몇해더냐 헤어져 몇해더냐
겨래여 나서라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슬기로운 민족의 가슴에 애국의 피가 끓는다
깃뻘힌 남녘의 강산은 원한에 몸부림친다
통일이나 분열이나 역사의 물음 앞에
겨래여 나서라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단결하자 조선민족아 통일의 문을 열자
혁명의 태양을 따르는 민족의 마음은 하나

수령님 밝혀주신 오대강령 화불을 따라
자주의 한길로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이 노래 가사에서 ‘조선민족’은 명확하게 남측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절대자의 위치에 오른 김일성을 중심으로 통일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 노래는 남한의 통일운동가, 해외동포들이 참여한 여러 정치적인 행사에서도 등장하였는데, 이 때에는 수령, 혁명의 태양, 오대강령의 가사는 등장하지 않으며 ‘갈라져 몇 해더냐, 헤어져 몇 해더냐’로 개사되어 불린다. 이것이야 말로 어찌면 ‘조선민족’이 지니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라 할 수 있다.

18) 북한은 제5차 당 대회에서 수립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 기초하여 대외관계를 실시하였다. 즉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구축 보다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에서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전략은 시기마다 부침은 있었지만 1980년 후반까지 고수되었다.

19) 또한 “민족은 생물학적 표징에 의하여 구분되는 인종과 다르며 한 국가안에 거주하며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하는 공민(혹은 국민)과도 다르다”고 부연하였다.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423

이 시기에 북한은 대한민국을 비방하였지만, 동시에 아련한 동포애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재현되었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양측 모두 하나의 민족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올바른 민족의 상은 자유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 체제에 의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굳게 믿고 있었다.

III. 사회주의 혼란기의 민족과 재현

1980년대 말부터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본격화되고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의 혼란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와 ‘김일성 민족’이 태동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내재하고 있었던 다차원성 그리고 개별적으로 재현되었던 사항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민족담론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민족담론은 학문적 이론과 동일하지 않다. 북한에서 민족담론은 학술적, 논리적 완결성 보다는 통치를 위한 기본적인 논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향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모호한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

1. 조선민족제일주의

북한은 기존의 사회주의권에서 금기시되던 ‘민족주의’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조선민족제일주의’에는 ‘사회주의적’인 요소와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며, 통일의 논리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김정일의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구별함과 동시에 사회주의의 보편성을 강조하여 양자의 균형을 모색하였다. 김정일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거나 령토가 큰 나라도 아니고 경제대국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민족을 깔보고 배척할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라며, 이것이 인종주의와 배타적인 민족주의와는 관계가 없으며 일제가 ‘야마토 민족’, 독일이 ‘아리아 민족’을 강조하여 세계를 지배하였던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⁰⁾ 당시 북한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보면 이 사상은 확실히 팽창적인 방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민족’을 다소 괴상한 방식으로 강조하고 선전하였다. 이 시기 전까지 북한은 민족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김일성의 ‘항일혁명’에서 찾았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이에 더하여 ‘조선’ 그 자체의 우월성과 탁월함을 선전하기 시작하였다.²¹⁾ 이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건국자인 동명성왕의 무덤이 평양근교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²²⁾

동시에,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작업이었으며, ‘주체사상’의 하위담론이었다.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20)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9), p.3.

21) 대표적으로 ‘단군릉’과 실제 단군의 유해를 찾았다고 주장하며 느닷없이 고조선의 ‘대동강 문명론’을 주장하였다. 물론 최근의 남한 학계의 연구는 한강문화, 대동강문화, 요하문화가 통합된 최초의 고대국가의 존재가능성의 여부를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정상적인 학술논의라고 볼 수 없는 주장을 하였다. 가령 북한 측은 단군의 유골을 직접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단군릉에서 나온 남자뼈에 대한 년대측정도 진행되었다. 뼈의 년대는 현대물리학의 첨단기술의 하나인 전자상자성공명법을 적용하여 두 개의 연구기관이 가지고있는 현대적측정기구로 24,회, 30회씩 각각 측정한데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5,011년전의 것이란 것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었다. 그 뼈는 다름아닌 단군의 유골이다. 단군의 유골이 지나간 기간 삭아 없어지지 않고 보존될수 있는 것은 유리한 지층에 묻혀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사회과학출판사 역사편집실, “단군릉발굴보고” 사회과학출판사 역사편집실 편,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연구논문집』(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pp.6-7.

22) 장수왕의 평양천도 당시 동명성왕의 유해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1992년에는 왕건의 무덤을 발굴하였다. 동명성왕의 무덤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왕건의 무덤인 ‘현릉’은 역사학계에서 수용하는 편이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고조선-고구려-고려의 기백과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상당히 공을 들여 주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투쟁함으로써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의 영향을 극복하고 민족 자주정신을 높이 발휘하게 되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자기의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자기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올수 있었습니다...우리 인민은 력사 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은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크나큰 영예로 간직하고 그것을 더욱 빛내여 나갈 의지와 신심에 넘쳐있습니다.”²³⁾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임으로써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오직 당정책의 요구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나가야 하겠습니다.”²⁴⁾

신기욱, 브라이언 마이어스, 찰스 암스트롱과 같은 서구권 학자들은 이러한 측면을 근거로 북한에서 민족주의가 사회주의에 앞섰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북한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평가한다.²⁵⁾ 하지만 북한에서 ‘민족’은 이미 주체사상과 연동되어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기에 사회주의에 앞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북한이라는 분단국가 내의 한쪽 공동체의 대내적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며, 한반도적 관점에서 통일민족국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²⁶⁾

또한 일반적으로 북한 문헌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는 소련, 동구권, 중국의 ‘사업작풍’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하여 고안된 단어이다. ‘사대주의’는 미국의 의견을 충실히 따르는 남한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대국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²⁷⁾ 이 시기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가 집권하여 자유주의적이며 서방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이 경제 개혁을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혁을 지지하는 내부 세력도 많았다. 따라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지도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내부 개혁논의를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표도 지니고 있었다.²⁸⁾

이와 같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이 슬로건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새로운 통치 담론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었다. 당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한 경제협력, 그리고 라진선봉지대의 개방을 준비하려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조선민족’을 강조하여 남한과의 협력 가능성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기제를 미리 준비해 놓은 측면도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 운영 방식의 도입을 민족에 기반한 ‘우리식 사회주의’로 선전할 수도 있었다. 이처럼 북한은 기존의 사상통제와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모호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형성하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체제 수립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1980년대 말에도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민’이라는 용어는 사회주의권에서 정치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23)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p.11.

24) 앞의 글, p.20.

25) 신기욱,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서울: 창작과 비평, 2009), 브라이언 마이어스, 고명희, 권오열 역 『왜 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서울: 시그마북스, 2011) 참조.

26)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p.199.

27)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타도의 대상이지 무엇인가를 수용하거나 배울 것이 있는 국가는 아니었다.

28) 흥미롭게도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복고적인 담론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당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려면 민족음악을 장려하여야 합니다. 민족음악을 장려한다고 하여 옛날 것을 그대로 되살리려 하여서는 안됩니다. 옛날 것을 그대로 되살리면 고티가 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람들의 감정에 맞지 않습니다. 민족음악을 발전시키는데서 복고주의를 철저히 경계하고 현대적 미감을 옹계 살려야 합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서구의 악기(전자기타, 드럼) 사용을 허락하였다. 이 덕분에 현대음악을 담당하는 ‘보천보전자악단’과 민요를 각색을 담당하는 ‘왕재산경음악단’이 조직되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북한의 기묘한 선전가요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는 왕재산경음악단이 불렀고 리철주와 현송월은 모두 왕재산경음악단 출신이다.

는 신분증에 해당하는 ‘공민증’이 있듯이 공적인 인민을 뜻하는 ‘공민’이라는 용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북한의 역사, 정치적 맥락에서 ‘민족’이 사회의 결속에 더욱 유용한 용어였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일제 식민지 상황 속에서 사회에 확산한 ‘민족’이라는 용어가 주민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또한 항일투쟁을 정당성으로 삼는 김일성주의가 이미 계급과 민족을 강력하게 결합해 놓았은 결과물이기 때문이었다. 둘째, 위의 상황에 더하여 분단 구조 속에서 ‘민족’이 매우 강력하게 강조되었던 까닭이다. 물론 그 안에 김일성주의와 사회주의가 잠복하고 있었으나,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체제의 차이를 뛰어넘은 (남한은 사회주의 전과 대상의 객체이기도 함) 민족의 회복이라는 유토 피아적인 요소가 재생산되고 있었다. 셋째, 북한이 수령제를 강조하면서 혈연적 메타포 ‘사회정치적 생명체’, ‘사회주의 대가정’, ‘아버지 수령, 어머니 당’ 등을 사용하였다. 인민과 공민은 사회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도자와 주민들 간의 가족적, 혈연적 함의를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4년부터 ‘김일성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주민만 포괄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민족’과 ‘혈연’이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면, 정영철의 주장처럼 ‘민족제일주의’와 ‘김일성 민족’이라는 상호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나름의 통합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이는 남한으로의 확장성을 희생한 것이다.²⁹⁾

2. ‘민족과 운명’과 ‘41년도 바람’

우리가 만일 통치담론만 분석한다면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새로울 것이 없는 김일성주의의 한 프로그램의 일부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도 고립주의적인 정책이 지속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제작된 북한의 영상매체를 분석한다면, 사회주의 틀 안에서 존재하지만, 상당히 새로운 면모들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 기간을 대표하는 두 작품 ‘민족과 운명’과 ‘41년도 바람’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1) 민족과 운명: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1992년 북한에서는 ‘민족과 운명’이라는 작품이 등장한다. 유니버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작품은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다루고 있다.³⁰⁾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통치담론을 한편으로는 반영하였지만, 통치담론 이상의 것들을 영상으로 재현하였다. 초기에는 남북관계 속에서 화제를 일으킨 인물들 최덕신, 윤이상, 최홍희, 이인모를 최현덕, 윤상만, 차흥기, 리정모로 각색하였다. 그리고 허구의 인물인 홍영자 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을 그리고 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분단구조와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북한주민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이 시리즈는 상당한 제작비가 투입되었는데 웅장한 전투장면, 헬리콥터, 기관총, 골프장, 해외촬영, 헐리우드와 비슷한 액션 장면이 총 망라되었다.

특히 이 시리즈에서 남한은 가난하고 빈곤하게 묘사되지 않는다. 주택은 말끔하게 나오며, 밥상에도 많은 반찬들이 나온다. 서울의 화려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지만, 당시 서울의 평균적인 주민들의 일상보다 더 화려하게 묘사된다. 또한 극중에서는 한국, 남한, 대한민국, 이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작품의 제작진들은 상당한 공을 들여서 남한과 서구의 모습을 세세하게 묘사하였다. 가령 대한항공 비행기, KBS 라디오 방송, 미국, 델타항공 포스터, 캐나다, 프랑스의 에펠탑의 모습이 등장한다. 또한 임수경 스타일로 옷을 입은 전대협 학생들이 이인모 노인의 복송을 위하여 탄원서를 받는 장면도 등장

29) 2000년대 들어서 통일담론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우리민족제일주의’가 등장하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민족제일주의 모두 특정한 정치적 시점에 구현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30) 이 작품은 김정일의 직접지시로 제작되었고 ‘종자론’을 성실하게 따른 작품이라고 전해진다. 그리고 전선선동을 담당하였던 후계자 김정일의 20년의 성과가 반영된 작품으로 평가된다. 강혜석, “동원의 기획으로서의 북한 민족주의: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현대북한연구』 20권 3호 (2017), p.153.

한다. 비슷한 시기 평양의 발전된 모습을 그린 ‘대동강에서 만난 사람들’에서도 서구적인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림> <민족과 운명>에 등장하는 대한민국의 모습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남쪽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찾아 배치하고 있다. 이 작품의 1 편의 주인공인 최현덕은 국민당 휘하의 군대에서 대령으로 해방투쟁을 벌인 인물이다. 그는 사회주의자는 아니며, 철저한 반공주의자이다. 하지만 국군에 친일파가 남아 있는 것에 분개하고 있으며, 나름의 방식으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쟁 장면에서 최현덕은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용감하고 강직한 모습으로 전투에 임한다. 그는 “화랑도의 정신을 이어 받은 남아들이여, 화랑도가 적 앞에 비겁한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공산군의 진격을 막지 못한다면 삼천만 겨레가 우리를 두고두고 원망할 것이요. 당신들이 진정 겨레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진짜배기 화랑도의 후손들이라면 이몸이 찢어지고 백골이 진토될 때까지 싸우자! 동지들 나를 따라 앞으로!” 라며 솔선 수범하며 전투에 임한다. 그리고 북측의 장성들은 “뜻밖인걸! 오합지졸이 되었던 놈들이 어디서 저런 용기가 생겼을까?” 라며 적장의 용맹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북한 영화에서는 이례적으로 의연하고 용감한 국군의 모습이 등장한다. 그리고 단란하고 단정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노모를 잘모시는 효자로 묘사된다. 북한의 입장에서 그의 사상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의 인간성 그 자체는 악하지 않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비슷한 시기 김일성의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에서도 한국전쟁에 대한 ‘휴머니즘’ 적인 서술이 등장한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 과거 김일성 부대와 전투를 벌인 적이 있었던 김석원 장군과 경비여단장 최현이 대치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대가 먼저 북쪽을 침입하여 국경지대에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최현의 부대가 이를 용맹하게 물리쳤다고 한다. 이때 김일성은 추가적으로 보복하려는 최현을 말리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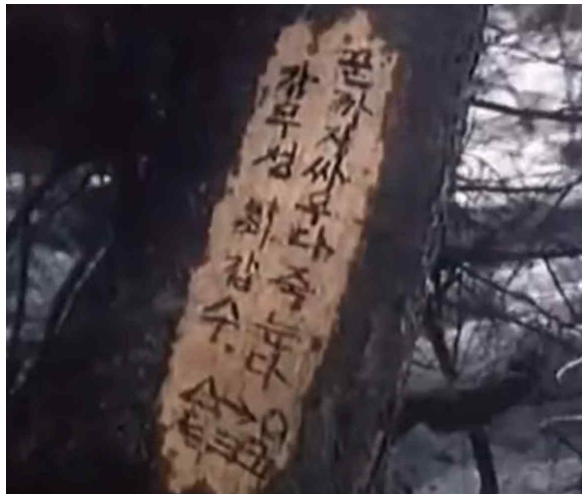
“나는 최현에게 당장 철수하라고 엄하게 명령하였다. 그 사람이 옛날에는 일제놈들의 충견이 되어 싸우러 왔었지만 지금은 미국상전에게 매워있다, 자칫하면 동족끼리 죽일내기를 하게 되고 전면전쟁으로 번져질 수도 있다, 김석원도 조선사람이니 언제인가는 자기를 뉘우치게 될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지금은 최현도 김석원도 이 세상에 없다. 그들을 대신하여 오늘은 망국의 설움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북과 남에서 총부리를 마주대고 군사분계선을 지키고 있다. 나는 북과 남의 모든 새 세대들이 민족의 피줄을 두토막으로 동강낸 이원적인 그 장벽을 하루 속히 제거해 버리고 자주적인 통일조국에서 화목하게 살기를 바란다. 김석원도 말년에는 이런 녀원을 품고 있

있을 것이다.” 31)

1990년대에도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략했다는 기존의 주장은 고수하고 있지만, 김일성이 김석원을 용서하며, 동족을 생각하고 있다는 면모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즉 공식적인 통치담론인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선명하지 않았던 민족주의적 면모가 작품에는 명료하게 묘사되고 있다.

민족을 매개로 남측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기본적으로 ‘주체’의 틀 안에서만 발생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위에서 언급한 인물들은 최종적으로 북한 체제의 지지자로 변모하였다.

2) 41년도 바람: 민족과 운명이 제작되었던 시기와 유사한 시점에 ‘41년도 바람’이라는 영화가 제작되었다. 이 영화는 1941년도라는 특정한 시점에 주목한다. 영화는 1941년 4월 13일 소련과 일본의 중립조약체결이 가져온 충격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당시 히틀러와 전쟁 중이었던 소련이 일본의 공격을 우려하여 이들과 일종의 불가침조약인 중립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소련 공산주의의 지원을 통해 조국의 독립운동을 계획하였던, 공산계열 항일투쟁가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주었다. 이 영화에서 일본군은 절망에 빠진 조선공산군을 무력 뿐만 아니라 편안함과 따뜻함을 무기로 삼아 공략하였다. 극중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김일성 부대의 일부 대원들은 동요하였다.



<그림> 영화 41년도 바람에 등장하는 ‘스탈린-마즈오카 사진’과 ‘구호나무’

영화는 추운 겨울 산에서 투쟁하다 본대에서 이탈하게 된 세 명의 부대원이 본대로 복귀할 것인가, 소련-일본 조약으로 사실상 혁명의 동력을 상실한 상황을 수용하고 마을로 돌아가서 훗날을 도모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하는 것이 주된 줄거리이다. 영화는 주인공인 허운석의 변절과 무성과 갑수의 충실성을 대조한다. 극중에서 운석 역시 미인인 춘희의 구애를 물리치고 항일투쟁에 참여할 만큼 의로운 인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운석은 대외환경의 변화로 희망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며 다음과 같이 절규한다.

운석: “혁명에서 힘의 원천은 희망 아니야? 나는 승리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싸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니? 어디에 희망이 있다는 말이야?”

무성: “운석이 넌 늘 이론을 풀기 좋아했지. 그 이론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만해. 네가 어디서 힘

31)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6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5), p.223

을 얻고 혁명을 했고, 어디에 희망을 두었던 것인지 알만하던 말이야. 난 그 어떤 이론이 없어. 세상에 태어나 우리를 사람답게 대해주시고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시는 장군님을 사령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버지로 모시겠다고 한 맹세를 끝까지 지키자는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해마다 죽으면 죽었지. 짐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어떻게 의리를 저버린다는 말인가!”

반면 인텔리겐치아 윤석에 비하여 이론은 부족하지만, 무성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혁명을 포기한 윤석은 따뜻한 곳에서 일본군이 주는 고기와 술을 마시지만, 무성과 부상당한 갑수는 강추위 속에서도 본대를 찾아 투쟁을 계속해 나간다. 그리고 좌절 가운데 ‘끝까지 싸우다 죽는다’라는 구호를 나무에 세기고 쓰러진다. 이들은 극적으로 동료들에 의해 구조되며, 해방을 맞이하여 조국으로 돌아온다.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의 나레이션은 영화의 종자이자 핵심을 다음과 같이 축약한다.

“그 준엄했던 41년도의 바람! 그 바람은 그 후에도 불었고, 오늘도 불어오고 있다. 앞으로 또 언제 불어올지 모른다. 그러나 바람이 아무리 사납다 한들, 어찌 태양을 가리우며, 태양을 따르는 정의와 진리의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단 말인가.”

즉 이 영화는 소련의 붕괴 및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당대의 정치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다. 41년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당대의 북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도 “41 년도 바람은 이렇게 자기자신이나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은 하찮은것으로 보면서 큰 나라의 덕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락오자들과 투항분자들이 생겨난다는것을 보여주었다.”³²⁾ 며 사회주의 혁명 역시 조선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정리하자면 북한은 나름의 방식으로 ‘민족’을 강조하며 남쪽과 불가피하게 접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을 일정 수준 예비하고 있었다. 분명 개혁적인 움직임과 변화도 존재하였다. 그렇지만 이 시기 북핵문제가 불어지지 않았더라도, 북한은 체제의 결함을 공표하거나, 김일성과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정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IV. 김정은 시대의 ‘국가-민족’ 그리고 재현의 부재?

1. 강조되는 ‘국가’

김정은 시대인 2017년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국내의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의 ‘우리 민족제일주의’와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2018년 남북대화기(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노딜)까지 역사적 혈통적인 측면의 ‘민족’은 큰 단절 없이 지속되었다. 다만 우리는 과연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병렬적으로 대조 및 비교 가능한 속성의 통치담론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일종의 발전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³³⁾ 북한은 이것이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계승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북한에서 ‘민족’이 한반도 전체의 민족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민만을 한정시키는 양가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이는 통일담론과 분리된 별개의 내부 통치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김일생 출생 100주년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의 최초 육성 연설이 북한 주민에게 전파되었

32) “41년도 바람이 새겨주는 교훈” 『로동신문』 2016년 8월 10일, 2면.

33)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23권 1호 (2020), p.9.

다. 도입 부분을 제외하고 이 연설의 본론은 ‘김일성 민족’으로 시작한다.

“위대한 김일성 민족의 100년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준 력사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올바른 령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 탓으로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던 비참한 식민지약소민족이 바로 한세기전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민족의 100년사는 파란 많은 수난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웠습니다.”

이처럼 김정은은 반만년의 역사는 자랑스럽고 중요하지만, 김일성이라는 지도자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온전한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까닭은 1년 정도의 짧은 공식 준비기간을 통해서 후계자가 자신의 업적이 아닌 선대와의 혈연적 관계로부터 정당성을 얻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후계자가 아닌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선포한 날도 김일성과의 혈연적 관계를 상징하는 날이었다.

동시에 선대와는 구분되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비전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같은 연설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만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진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2010년 당 창건 기념일에서 공식 등장한 김정은이 주도한 2011년 신년사를 통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넓고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혁명적으로 개변시켜나가는사람이 참다운 강성대국건설자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인재대국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라며 자신만의 방향성을 밝혔다. 이에 비하여 ‘민족’과 ‘통일’은 원론적 수준에서만 논의되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초기 ‘민족’이 강조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이 당시의 국가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민족을 통치담론의 전면에서 내세우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체제 존속을 위해서는 경제 안정화와 인민 생활 향상이 보다 시급한 상황이었다. 물론 이 역시 대한민국 혹은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것처럼 ‘시장경제’의 수용 혹은 개혁 개방의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반쯤 이완된 사회주의 제도 내에서의 개혁을 실시했을 뿐이다. 그리고 선군정치 기간 거대해진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만을 펼쳤을 뿐이다. 게다가 2013년 2월 3차 핵실험과 미사일의 고도화로 인하여,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있다. 당시 남한에서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냉엄한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회복을 희망하였던 시민들의 마음도 이미 싸늘하게 식은 상태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을 제시한 상황에서, ‘민족’을 강조할 수도 없었다. 사회적 차원을 살펴보자면, 여러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성장한 남한의 모습이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남한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을 논의하는 것은 핵 무기가 정당성의 전부인 북한에 유쾌한 일이 아니다.

김정은 시기에든 기존의 혈통적 ‘민족’은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그 형태는 유지되었다. 다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정하기도 한다. 가령 북한의 리정림의 ‘민족소멸에 대한 선행한 로동계급의 리론’이란 글에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민족소멸론을 반박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발전 되는데 따라 민족이 없어지게 될것이라고 한 선행한 로동계급의 리론은 력사적 및 리론적 제한성을 가진다...사람들이 정신문화생활이 경제생활에 의하여 전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사회관계 속에서, 사회적 집단속에서만 살며 발전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사람들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공고한 집단인 민족 안에서 민족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자기 민족에게 고유한 정신문화생활을 창조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³⁴며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와 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여전히 민족적 전통과의 연속성, 단절성, 완결성을 표출하는 입장도 유지되고 있다. 예컨대 김

정은 시대에도 실학자의 염원을 김정은에게까지 연결하는 작업³⁵⁾이나, 통일담론으로서의 민족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정리하자면 김정은 시대의 통치담론 속에서 선진화 된 국가 건설은 분명 존재하였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민족’의 범주를 확장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2. 통일담론으로서의 민족의 융성과 쇠퇴

이처럼 의례적인 수준에서 논의되었던 ‘민족’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재호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 아니라, 남한의 주민들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혈연’적 요소가 다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김정은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아래와 같이 연설하였다.

“북과 남은 역시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이라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지척에 살고있는 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 할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 핏줄 한민족입니다...오늘 내가 다녀간 이 길로 북과 남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가슴 아픈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상징으로 된다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 가진 북과 남은 본래대로 하나가 되어 민족만대에 끝없는 번영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민족을 논의하였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남북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2018년에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과 남북관계의 전망에 기대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 시기 북한 주민들은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도입된다면 자신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 기간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남북관계,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민족’이 강조되고 있었던 시점에서도 여전히 ‘국가’ 담론이 조직되어 논의되고 있었던 점이다. 과거의 선례를 비춰 보았을 때 북한은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개선되어 교류협력이 증진될 경우에도, 이것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통치 이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달리 남한의 미디어와 정보가 북한 사회에 상당히 유입된 상황이었고, 과거에 비하여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는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과는 구별되는 논의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즉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국가’를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4) 리경림, “민족소멸에 관한 선행한 로동계급의 이론과 제한성”, 『철학연구』 2012년 4호, pp.38-39.

35) “그러나 형클어진 군사제도를 수습정비하여 나라를 튼튼히 지켜낼데 대한 실학자들의 국방사상은 애국심의 분출인 것으로 하여 당시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려는 인민대중의 지행과 합류되는 진보적인 사상이었다. 우리는 실학사상에 반영된 애국주의적인 국방사상의 제한성을 통하여 참된 애국주의는 오직 사회주의애국주의 밖에 없다는 진리를 깊이 명심하고 사회주의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인 김정일 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주체의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실학자들의 국방사상은 새로 수립된 김정일 애국주의와 연동되기 시작하였다. 지일신, “실학사상가들의 애국주의적인 국방사상”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2018년 제 64권 4호, p. 108.

하지만 남북한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하노이 노딜 이후 기존의 민족담론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³⁶⁾ 특히 수령제에서는 정치지도자의 발언이 종교적 교시의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도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며 추진하였던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북한은 매우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민족’과 ‘통일’을 강조하였던 것이 부메랑이 되어 정당성을 침식하였다.³⁷⁾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 예컨대 대북전단 문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서해안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말미암아 ‘민족’, ‘통일’ 담론은 약화하기 시작하였다.

3, 태양민족의 등장: ‘적대적 2 국가’ 재현의 부재?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의 14기 10차 회의에서 김정은 “북남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라는 현실은 외세의 특등주구집단인 대한민국이 극악하고도 자멸적인 대결망동으로 써놓은 북과 남의 명백한 현주소이며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면사포를 벗겨놓은 조선반도의 실상입니다.”라며 적대적 2 국가론을 본격화하였다. 사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를 명문화하였지만, UN에 동시 가입하여 국제적으로는 별도의 국가로 대우받고 있었다. 김정은의 발언은 ‘특수관계’를 지속하게 한 ‘민족’이라는 연결고리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남북관계의 경색과 민족 담론이 약해진 것에 따른 결과였다.

실제로 2020년도부터 노동신문에서는 민족, 통일, 민족통일의 용어의 사용이 급감하였다. 급기야 2022년도에 통일은 사실상 1번만 등장하였고, 민족통일은 완전히 사라졌다. 2023년도 7월부터 김여정 조직지도부 부부장은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는 상호존중이 아니었으며, 북한 특유의 날카로운 태도로 대한민국 정부와 군부를 비판하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미 남북관계는 파탄 상태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유화정책과는 달리 보다 강경한 입장의 대북정책을 실시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년도	민족	통일	민족통일
2016	205	181	26
2017	256	156	26
2018	237	177	29
2019	206	91	16
2020	99	12	3
2021	71	4(12-8)	2
2022	52	1 (13-12)	0
2023	120	0	0

〈표: 노동신문에서 나온 ‘민족’, ‘통일’, ‘민족통일’ 기사의 빈 도수〉

흥미로운 지점은 2023년인데 통일과 민족통일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민족’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민족이 아니라 새롭게 고안된 ‘태양민족’이었다. 태양민족이라는 용어가 드물게 사용되었지만, 2019년 12월 노동신문에 재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23년도부터 ‘태양민족’에 관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신문 기자들에 의해 소개되고 있다. “태양민족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잊지 못할 화폭들”, “후손만대 전해갈 태양민족의 귀중한 재보” “태양민족의 영광과 긍지를 새겨주는 위인일화”라는 용어들이 등장하였다. 같은 기간 ‘김일성 민족’이라는 용

36) 이후에도 김정은은 ‘민족’을 매우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사 표명은 2019년 6월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치적 성과가 나오지 못하며, 코로나 정국이 형성되었고 사실상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는 열매 없이 종식되었다.

37) 2018년 북한의 집단체조인 ‘빛나는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 방북 당시 공연되었다. ‘아리랑’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연에서는 통일과 민족이 매우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인민의 나라’로 바뀌었다.

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태양민족’은 선대와 차별화, 2018년도 이후 과도하게 강조했던 혈통적 민족주의 담론으로부터의 탈피를 모색하기 위해 고안된 용어라고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은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온 나라 인민은 태양의 밝은 미소로 강대하고 번영할 우리 국가와 인민의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드리고 있다.”³⁸⁾

이에 북한은 새롭게 ‘태양민족’을 통해 별도의 민족논의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위 문장에서 ‘민족’은 당연히 북한은 포함하고 있지만, 남한을 배제하고 있다. 과거의 ‘민족의 태양’은 한민족 전체를 포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와 비춰 볼 때, 민족의 범주는 축소되었다.³⁹⁾ 실질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 민족에 가까우며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성취를 우상화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돌이켜보면 ‘적대적 두 국가’를 제시하기를 위한 일종의 숨 고르기였다.

2027-05.03

태양민족의 영광과 긍지를 새겨주는 위인일화

다 시 보 내 주 신 본 배 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님은 우리 인민과 세계 전보적영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숭모를 받으시었지 만 자신에 대한 그 어떤 과와도 떠난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같이 곁히 하고 소박하게 생활하시었다.》

주체 82(1993)년 11월 어느날이었다.

어날 평원군 철화협동농장(당시)에서는 결산분배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전후 사회주의농업협동화시기부터 명예농장원으로 되신 어버이수령님께 지난 기간 저급한 여주었던 분배물을 상충히 올리는 결산이 채택되었다.

분배물이라는 전회의 나날 농민들과 함께 분배물을 주리시던 그때로부터 농장이 나아갈 길을 밝히 밝혀주시며 농장의 광활함을 일일이 돌보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자신에서도 여기 조합원이었고, 조합원이 되어 도움이 작는데 모르겠지마는 함께 농사를 갈래서 원위협동조합을 탈퇴시켜보자고 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농장의 장차발전을 위해 기울이신 심혈과 로고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나라의 국가주석이 이렇듯 평민이 되어 한 농장의 조합원이 된 그런 때가 농사고급 그 어느 백사의 감격에 기록된적 있었는가.

그후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의 명예농장원이 되시며 수시로 이곳을 찾으시고 농장성립을 힘써주시심으로 보살펴주시었던 것이다.

그날의 분배모임에 대한 보고를 주의깊게 듣고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10만원이라, 10만원이면 부자지, 협동조합을 조직할 때에는

이쯤 한세도 먼번한것이 없었는데... 이 많은 분배물 어디에 다 쓸까라고 충고했게 노제가사를 회유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었다.

이윽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돈으로 농장에 트랙토르와 자동차, 농기계를 사서 보충해주라고 교시하시었다.

매절후 일꾼과 마주앉으시어 농장에 보낼 기계들을 마련하는데 드는 자금을 계산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자선에서 지금 한 돈보다 더 많다는것을 아시고 다음에 분배물에서 분할하도록 하라고 하시며 즐겁게 웃으시었다.

이렇게 되어 우리 수령님의 사랑이런 트랙토르와 전정자, 자동차가 10리밖에서 마중나온 농장원들의 노래와 함성에 파묻혀 농장으로 들어서는 감동같은 화풍이 펼쳐지게 되었다.

일꾼들이 밀을수 없고 적정없이 는 풀을수 없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원의 한 정치활동가는《나는 서상에 한 나라의 수령이 평대농장원이 되어 분배물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도 처음 들었고 그 분배물으로 농민들을 위해 트랙토르며 자동차를 사서 보내주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인류가 농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것은 정말 전설같은 이야기입니다.》라고 자기의 각동된 심정을 토로하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위대한 평원이 되시어 생활하신 전실같은 이야기가 어찌 철화농장에만 새겨져있다고 하랴.

돌이켜볼수록 자신도 인민의 한성원이라는 고결한 인민적충모를 지니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똑같이 생활하시려는것을 원칙으로 삼으신 우리 수령님의 혁명생애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는 절대위인의 고귀한 한평생이었다.

하기에 오늘날도 우리 인민뿐 아니라 세계의 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대한 인품과 역량에 감탄하며 수령님은 인류가 낳은 20세기의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격조높이 구가하는것이다.

본사기자 고희명

<그림>태양민족을 다룬 노동신문 기사

이 지점에서 긴장이 발생한다. 국가의 유형을 막론하고 민족과 국가의 기원은 사회통합과 결속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북한 역시 혈연, 장소성, 역사, 풍습을 일정 수준으로 포괄하는 ‘민족’을 논의해야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분단국에서 혈통적, 종족을 강조하면 또 다른 형제국을 포함해야만 한다. 또한 남북 모두 강조점은 다르다 할지라도 장기간 ‘1국가’ 통일안을 사실상 고수하였다. 게다가 분단 이후 남북 모두 다문화 국가가 아니라 강력한 종족적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논의를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시점이었던 2021년에도 역사적, 전통적 관점의 ‘민족’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⁴⁰⁾

38) “태양민족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잊지 못할 화폭들” 『로동신문』 2022년 2월 16일. 5면.

39)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어버이,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남녘겨레의 신념은 더욱 굳세여지고 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등 남녘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울려 나오는 겨레의 심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김일성 주석은 민족의 태양” 『로동신문』 1995년 9월 10일. 6면

국가의 공식 담론은 애매하고 불편한 사항들을 의도적으로 제외하여 공백을 형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매체로 새롭게 재현할 때는 보다 큰 어려움이 따른다. 과거에는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도덕’이라고 여겨지는 가치를 강조하며 분단구조 속에서 민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적대적 2 국가에서는 민족은 부재하며, 해방도 없고, 도덕도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적대적 2 국가’ ‘2 민족’ 및 통치담론을 재현한 작품은 등장하지 않았다. 물론 지도자와 전통적인 항일투쟁만을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분단 구조에서 비전을 투사할 수는 없게 된다.

또한 북한주민의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도 이러한 급작스러운 전환과 공백은 낯선 것이며, 이것의 재현을 담당하는 인사들도 분단국의 특성을 완전히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재현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북한당국이 보다 ‘적대적 2 국가’에 따른 ‘2 민족’을 보다 선명하게 제도화한 이후에 이를 추진 할 것으로 여겨진다. 민족의 구성요소인 혈통, 언어를 공유하고 있으며, 비록 영토는 분단되어 있으나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서로를 부정적으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구조 속에서 진정으로 ‘2 국가’, ‘2 민족’이 가능한 것인가? 북한의 존재를 부정해야만 하는 것이 남한의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인 것처럼, 북한 역시 남한이라는 길은 그림자와 계속해서 대결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남한 자체가 풍요와 번영을 보여주는 강력한 징표로 각인되어 있고, 존재 자체가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상황에서 ‘태양민족’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니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담론과 실재를 분리하는 작업으로 만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본 연구는 북한의 ‘민족’ 개념이 지니고 있는 다차원성과 그것의 재현 양상에 논의하였다. 민족은 마르크스주의, 한민족의 역사적 맥락, 통일담론, 김일성의 신민 등과 같은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었다.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요소들이 강조하였으며, 이는 2025년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체제 수립 시기에는 스탈린의 민족개념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혈통적인 요소를 공개적으로 강조하지 못하였다. 또한 민족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단계에서만 존재하는 임시적인 사항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시기 북한의 사회가 스탈린의 민족 개념을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혈통적인 의미의 민족은 보다 강력하게 착근되어 있었다. 냉전 시기 공식적 문헌에서는 ‘혈통’을 소극적으로 강조하였으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곡된 노래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혈통’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 역시 근대 민족 국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적 민족과 사회주의를 일치하는 작업을 실시해야만 했다. 또한 북한에서 주체사상과 수령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지도자와 민족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전개되었고, 이는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과정에서도 보다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김정은 시대 초기에도 이러한 골격은 유지되었다. 다만 그가 집권한 시절의 정세에는 발전과 민생이 강조되는 통치담론이 보다 필요하였다. 이에 북한에만 한정된 ‘국가’가 더욱 강조되었다. 전통적인 민족관, 통일담론은 원론적 차원에서만 논의되었으며, 전통적인 자기재현도 유지되었다. 하지만 2018년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혈통적 민족에 입각한 통일담론이 매우 강력하게 형성되

40) 특히 북한은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훈민정음의 우수성에 대해서 다음과 묘사하였다. “우리 민족은 1444년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글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온 이후 우리 문자의 과학리론적인 해설서인 《훈민정음해례》가 편찬되었다. 《훈민정음해례》는 그 이름이 말해주는바와 같이 훈민정음에 관한 해(풀이)와례를 기본내용으로 하고 책의 첫머리에 세종이 지은 머리글과 례의를 놓았으며 마지막에 정린지의 서문을 달아 놓았다. 훈민정음은 다른 나라 글자를 받아들이거나 거기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조선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만든 고유한 글자이다.” 하지만 훈민정음 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세종대왕이나 집현전 학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추상적인 ‘조선사람들’의 힘과 지혜만을 칭송할 뿐이다. 특히 훈민정음이 ‘다른 나라 글자를 받아들이거나 거기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통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선전하는 ‘자주성’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 장숙영, 정룡수, 홍범식, 채대양, 『력사를 통해 본 민족의 우수성』 (평양: 평양출판사, 2021), pp.35-36.

었으며, 이 시기 북한 주민들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염원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없었다. 사실 2017년 공식적으로 태동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남북대화 기에도 유지되었으며, 하노이 노딜 이후 보다 공식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로 말미암아 새로운 통치담론 속에서 민족의 범위는 더욱 축소되었다. 민족담론에서 통일은 사실상 제거되었다. 과거에 잠시 사용된 적이 있던 ‘태양민족’이 등장하여 김일성-김정일의 민족만을 지칭하게 되었다.⁴¹⁾ 그리고 남쪽의 민족은 이 범주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하였다.⁴²⁾ 담론과 실재의 괴리가 북한 및 사회주의권의 특징이다. 또한 어느 한쪽을 의도적으로 무시할 수 있으며, 지도에서 삭제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탑을 부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식적 차원에서 상대방을 부정한다고 해서 ‘민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상이한 방식으로 해석되지만, 공통의 역사적 사건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폭력적인 분단구조로 말미암아 갈등적인 공통의 역사를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물질적 풍요와 발전은 항상 남쪽과 연동되어 있으며, 혈통적 민족인 남한의 존재 그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들 체제의 정당성에 질문을 유발한다. 이처럼 강력한 적대적 분단 구조가 존재는, 여전히 북한 당국을 제약할 것이다. 민족의 ‘영속적 속성’이 현시점에서 통일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이 속성은 언젠가 돌아갈 수 있는 고향과 같으며, 이는 북한과 김정은 정권에게는 여전히 크나큰 제약으로 남을 것이다. 이것이 아직까지 동족 관계를 제거한 ‘적대적 2 국가’를 선언하였으나 이를 주민의 언어와 일상의 시각에서 재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41) 강혜석 역시 우리민족제일주의와 김일성 민족 사이의 긴장을 지적하였다. 약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김일성 민족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강혜석, “북한의 민족건설과 두 개의 ‘민족론’: ‘통일론’과의 긴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3집 1호 (2019), p.148.

42) 정치적 상황을 떠나, 남한의 성숙한 민주주의로 말미암아, ‘민족’을 매개로 북한 체제의 가치관과 호응 해줄 수 있는 사회세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기껏해야 전략적 관리대상으로 전략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 제2논문

김정은 시대의 국가균형발전전략 평가: 성과와 한계

홍순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I. 들어가는 말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북한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당 수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목표와 방향의 적합성, 북한당국의 발표치와 실제 달성 여부 및 가능성 등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 김정은 총비서는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해 경제·핵 병진 노선 하에 핵무력 고도화와 다양한 경제 정책을 단행하였다. 경제 부문에서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도입과 23개의 경제개발구 지정 등 다양한 개혁·개방 조치를 추진하였다. 특히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표방하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과 5개년 계획(2021~25)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목표치와 과제, 성과 지표 등을 발표하였다.
- 그러나 국내외 통계에 의하면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2021년 대외무역은 2014년 대비 90%나 감소하였다. 더욱이 일기불순까지 겹쳐, 김정은 집권 후반기(2017~)의 북한 경제는 북한 당국의 발표와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여기에 더해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촉발된 신냉전 분위기 속에, 북한의 경제 통치전략의 방향과 목표가 바람직한가? 그리고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성과와 실제 경제 현실과의 괴리 논란이 존재하는데, 사실 여부와 그 원인 등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한다.
- 또한 주요 기관에서의 추정치들도 상이한 경우가 종종 있어 많은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경제 통계를 접할 때마다 답답함과 의구심, 불신이 존재한다.
- 실제로, 북한은 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은 “국력제고에 있어서나 국위선양에 있어서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라고 평가하였다.⁴³⁾
- 특히 경제 부문에서 큰 성과를 강조하였는데, 알곡 등 12개 고지(목표)를 모두 점령하였고, 국내총생산은 2020년(BOK -4.5%) 대비 1.4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 그러나 북한의 2023년 GDP의 2020년 대비 1.4배 증가 발표와 식량 및 전력 등 여타 경제 성과 발표에 대해 BOK의 2016년 이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과 예산증가율 등을 고려하건대 실제 달성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2023년 북한경제가 정(正)의 성장률(BOK, 3.1% 추정)을 기록했다고 해도 기저효과가 상당부문 반영되었기 때문에 실제 성장률은 발표치보다 낮아 인민들의 실생활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이민위천, 애민 지도자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치적 선전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대해, 이들 전략의 실제 성과와 지속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3) 조선중앙통신 2023. 12. 31.

- 김정은은 출범 초 평양의 5대 신도시 조성을 비롯하여 평양주택 5만호 건설과 농촌 살림집 건설 등의 주택건설정책과 최근의 지방발전20×10정책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 이들 두 정책은 김정은 시대의 역점 분야인 ‘인민생활 향상과 지역·지방 발전’ 전략의 대표적인 균형발전정책이다. 본고에서는 김정은 시대 경제부문의 통치담론을 간단히 살펴본 후 이들 두 정책을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실제와 성과, 향후 전망, 한계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 본 연구는 연구 기간 전반부에는 북한 원전과 국내외 문헌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후반부에는 외부전문가와 탈북민들과의 워크숍이나 학술대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보완해나갈 계획이다.

II. 김정은 시대의 경제 통치담론과 경제정책 특징

- 북한의 통치 담론과 주요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기본 방안으로 하면서, 중공업 우선발전전략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유지해오고 있다. 이를 시대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김일성 시대는 체제경쟁(일심단결, 주체사상 등 사상강국 건설) → 김정일 시대는 체제 수호(군사강국 건설) → 김정은 시대는 사회주의강국 건설 완성으로 체제 안정(새세기 산업혁명, 경제강국 건설)과 정상국가화(당대회 개최의 정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김정은 시대의 경제 부문 통치담론 : 인민대중제일주의
- 김정은 체제의 통치담론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 북한은 2012년 4월 김정은을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추대하면서 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공식화하였다.⁴⁴⁾ 또한 같은 해 5월 김정일애국주의를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추동력으로 내세웠고⁴⁵⁾ 2013년 1월 제4차 세포비서대회 연설을 통해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명제를 내세우며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새로운 통치담론을 꺼내 들었다.⁴⁶⁾
 - 우리국가제일주의는 2017년 11월 29일 정론을 통해 핵무력 완성 선언과 함께 등장했는데, 당시는 핵 무력 완성 이후 우리국가제일주의가 우리민족제일주의와 함께 언급되었다.⁴⁷⁾ 이는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으로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 나아가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21년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정식화되었고,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공식 담론으로 공식화되었다.
 - 마침내 김정은의 통치 담론은 가장 상위에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불멸한 담론으로 확정하고, 자신만의 독자 이념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김정은 체제의 통치 담론과 지위 변화 >

구분	1998	2012	2016	2020	2021	2022
김일성	영원한 주석		영원한 수령	영원한 수령	위대한 수령	위대한 수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원한 수령	영원한 수반	영원한 수령	위대한 수령	위대한 수령
		영원한 총비서				

44) “우리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 『로동신문』, 2012년 4월 12일.

45)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자,” 『로동신문』, 2012년 5월 21일.

4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3년 1월 30일.

47)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 『로동신문』, 2017년 11월 29일.

		영원한국방위원장				
김정은		당 제1비서	당위원장 국무위원장		수반 총비서	위대한 수령
통치담론 우선순위	김일성주의 우리민족제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사상제일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사상제일주의
기본 정치방식	주체사상	선군사상	선군사상	선군사상	인민대중 제일주의사상	인민대중 제일주의사상

출처: 강채연, “김정은 집권 10년 통치담론의 동학,” p. 139.

- 김정은 체제에 들어,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국가경제발전전략(2016~2020)과 국가 경제발전계획(2021~2025)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강국과 선진문명국 실현과 인민생활 향상, 식량 증산과 전력 등 4대 선행부문 우선 해결 등을 강조하였다.
- 특히 김정은 총비서는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중공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지방공장 건설을 통해 경공업 발전에 역점을 두는 한편, 국토건설의 새로운 부흥을 강조하면서 평양시 개발과 살림집 건설을 통해 평양을 ‘먼저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미는 데 역점을 두었다.
- 2021년부터는 평양주택 5만호 건설과 농촌 살림집 건설 확대를 통해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과 인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다.
- 한편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특징은 ① 시장화, ② 실리·실용주의화, ③ 현대화·과학화·정보화, ④ 국산화·주체화를 통한 자강력 제일주의와 경공업 우선 정책, ⑤ 전 국토의 맞춤형 소규모 경제 개발구 정책을 통한 개방화, 그리고 ⑥ 도농 간 국가균형발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들 정책 수행을 위해 다양한 법·제도를 도입한 점도 특징적이다.⁴⁸⁾
 - 여기서 시장화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합법화된 종합시장(장마당)의 매대를 국가 재 정수입으로 흡수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 안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허용·공존하는 ‘혼합형 경제체제’로의 목시적 인정과 확대⁴⁹⁾를 의미한다.
 - 두 번째 특징으로는 실리·실용주의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공동 생산, 공동 분 배 원칙에서 벗어나 성과 위주 및 현장 중심 운영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6.28방침과 5.30담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등에서 잘 드러난다.
 - 세 번째 특징으로는 현대화·과학화·정보화를 들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 중시와 우수 인재양성을 토대로 한 경제성장 전략으로 이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구호와 함께, 평양의 신도시 건설과 주택 5만호 건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학자거리 조성과 과학기술자들에 대 한 주택 우선 배정 등을 들 수 있다.
 - 네 번째 특징은 국산화, 주체화(자강력 제일주의)로, 이는 경공업과 소비재 제품 부문을 중심으로 자 립경제와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추진한 수입대체공업화 전략 추진⁵⁰⁾ 등을 들 수 있다.
 -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제대로 시도는 못했지만, 경제개발구법 채택 등의 개 방화 정책을 들 수 있다. 2013년부터 전국적 지정한 경제개발구는 각 도 단위에서 기존의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와 합영·합작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금강산관광 및 개성특구 등 이전의 5개 대규모 경제특구 정책에서 2013년부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전방위적인 ‘소규모·맞춤

48) 홍순직,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와 남북한 산업 협력 방안』, 희망래일 대륙·인문아카데미 강의 자료, 2022. 6. 29. p. 51.

49) 유영구,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I』, 경인문화사, 2022. 12. 20. pp. 234~261.

50) 임을출,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계승과 변화』,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50, 한울, 2021. 12. 31.

형' 경제개발구 정책으로 확대 추진한 것으로, 이는 전국토의 특구화와 분권화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끝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제공한 평양과 농촌의 살림집 건설정책과 지역·지방 발전을 위한 지방발전20×10정책을 들 수 있다.
- 상기의 특징 중 ①과 ②, ③, ④는 인민 생활 향상과 관련성이 높고, ③과 ④, ⑤, ⑥은 지역발전 및 지방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 이하에서는 북한의 살림집 건설 정책과 지방발전20×10정책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의 핵심 통치전략인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김정은 시대의 균형발전전략과 성과 평가

1. 지방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전략 추진 경과

- 김정은은 집권 직후부터 지역 발전과 이를 위한 지방경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⁵¹⁾ 지방공업의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인민들의 식량 문제 해결과 지방공업 발전을 추동하며, 시와 군의 소재지와 농촌마을 개선 사업 등 구체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 이를 반영하여 지역단위에 권한을 확대·법제화하여 지속성을 강화하였으며, 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에서도 지방지표를 자체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인민경제계획법'에 반영하였다.
- 특히 2016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발표에서는 종전의 자립적·종합적 발전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첨단과학기술을 결합하여 혁신할 것을 원칙에 추가하였다.⁵²⁾
- 또한 지방발전을 강조하면서도 교육과 보건, 체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문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하여 지역개발사업으로 확대한 점과, 경제부문에서도 기존의 농업과 공업과 같이 생산단위를 중심으로 강조한 데에서 상업 및 사회급양, 편의봉사 부문까지 군(郡) 담당해야 할 사업임을 구체적으로 강조한 점 등이 특징적이다.⁵³⁾
- 지방발전의 필요성 인식과 법·제도 정비 등은 긍정적이나 성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2021년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지방경제의 자립적·다각적 발전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⁵⁴⁾
- UNICEF의 2017 MICS(복합지표조사)의 재산 지표(Wealth Index)⁵⁵⁾와 북한이 2021년 6월말에 제

51)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지방경제의 발전을 제시하여, 지방경제 발전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 내에 중앙공업공장과 지방공업공장이 함께 위치해 있는데, 이 중 해당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은 지방경제에 부여하면서 분권화와 지방경제의 자립적 구조 구축을 강조, 추진해 나갔다.(김일성, “군(郡)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연석회의에서 한 결론, 1962년 8월 8일),” 『김일성저작집』, 제1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244~245. 최은주, “북한의 국가발전전략과 지역발전 정책”, 『북한의 지역발전전략과 對러시아 관계 전망』, 2024 공동학술회의,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24. 11. 20. p. 6.

52) 최성일, “현시기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 『경제연구』, 2014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pp.19~21.

53) 길순영, “군경제발전계획화의 기본요구,” 『경제연구』, 2015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pp.18~19.

54)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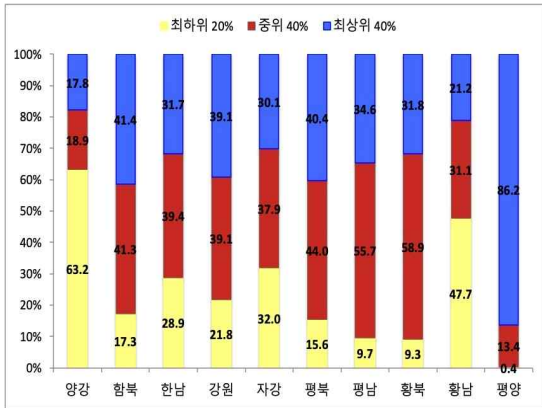
55)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복합지표조사(MICS :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는 종합지표조사, 다중지표군집조사, 다중지표집락조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MICS는 116개국에 대해 361개의 조사를 시행했으며, 전체 샘플사이즈는 685~55,120가구, 중위값은 9,179가구였다(Atkinson, 2019, p.106).

출한 ‘자발적 국가리뷰(VNR)’ 보고서에서도 지역 간, 도농 간 인민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생활 및 건강과 직결된 기초 인프라 수준에서도 많은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예를 들면 도시와 농촌 간 가구 재산의 경우, 상위 40% 가구의 비중이 도시는 60.0%에 달하는 반면, 농촌의 경우는 8.8%에 불과하며, 농촌 가구는 41.2%가 하위 2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양 거주 가구는 상위 40% 비중이 86.2%에 달하나, 양강도의 경우는 17.8%에 불과하고 오히려 전체 가구의 63.2%가 하위 20%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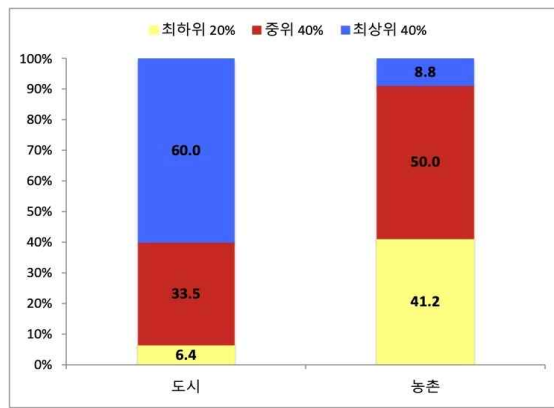
< 북한의 지역 간 가구 재산 현황 >

(단위: %)



< 북한의 도농 간 가구 재산 현황 >

(단위: %)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Findings Report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yongyang: UNICEF DPRK, 2018, p. 19.

- 지역불균형발전과 불평등 문제가 주요 사회 문제와 정치 의제로 부상하면서, 북한은 2021년 1월 제 8차 당대회-5개년계획 기간에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 간의 발전 격차 해소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 특히 2021년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앞두고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지역간, 계급간, 산업간 격차를 줄여 모든 구성원들이 경제·문화적으로 발전된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론’을 제기하였다.
- 북한은 당 중앙 차원에서 지역불균형을 직접 거론하면서 지역발전전략의 개괄적인 내용을 담은 시·군강화노선을 제시하였고,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직접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시·군을 거점으로 지역발전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사업과제를 제시하여 지역발전전략을 재확인하였다.⁵⁶⁾
- 이의 실현을 위해 ‘시·군발전법’(2021년)과 ‘시·군건설세멘트보장법’(2022년), ‘농촌발전법’(2022년)을 제정하여 지역 건설 사업에 필요한 원료제공 사업을 중앙 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법적 과제로 제도화하였으며, 2023년에는 ‘지방발전 20X10 정책’(2023) 정책을 채택하였다.
- 시·군 강화노선이 제시된 후 2021년 12월에 사회주의 농촌발전전략을 발표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발전과 농업 발전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 과거에는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방안들에 집중했으나, 전면적 발전론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발전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이라 명명하였다.
- 2022년 9월에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제정하여 농촌혁명강령을 법제화하고 기존의 논의 내용을 체계화하여 법안에 반영하였다.⁵⁷⁾ 여기에는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통한 물질경제적 토대를 구축하여

56)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1.9.

농촌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 특히 며, 농촌지역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 농촌마을건설총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방안, 국가적 지원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 o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농촌지역의 주택건설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고 지역단위에서 추진 중에 있다.
- 농촌혁명강령 발표 후 가시적으로 성과가 공개되고 있는 부문은 농촌주택 건설사업으로서 2021년부터 추진하여 2024년 6월 현재 44,000여 세대가 완공되었으며, 건설 중인 주택들이 완공되면 11만 3,700여 세대에 달할 것으로 공개하였다.⁵⁸⁾

2. 주택건설 정책 : 평양과 농촌 살림집 건설로 주거환경 개선과 보여주기 식의 프로파간다 효과

- o 김정은 시대의 통치담론과 건설 경제정책 추진 과정을 시기와 주요 사건을 고려하여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⁵⁹⁾

① 경제개혁 추진기(2012~2016) : 사회주의 문명국 비전과 과시적 건설 성과 도출

- 2008년 평양시 만수대지구를 창전거리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총 14개 동 2700세대 살림집 건설과 봉사망, 교육, 상업, 공원 및 편의시설 건립, 원형식 인민극장 건설을 완공하였다.
- 이를 계기로 평양시를 혁명적 수령관이 선 성스러운 혁명의 수도, 사회주의 문명국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선경 도시, 웅장화려하고 풍치수려한 세계적인 도시, 생태도시건설을 목표로 하는 공원 속의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평양시 건설 관련 지도 방침을 표명하였다.⁶⁰⁾
- 결국 김정은은 평양시를 필두로 북한 체제를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건설하자는 목표를 제시하였고⁶¹⁾ 2012~2016년 시기의 평양시는 김정은의 통치 담론이 투영된 거대한 프로파간다 공간(평해튼)으로 변모하게 되었다.⁶²⁾
- 이 시기의 건설사업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구현한 새로운 지도자의 통치력을 과시하는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시를 자신의 위상과 권위를 보여주는 시각적 스펙터클로 활용하였다.
- 이 시기에는 초고층(려명거리 아파트, 82층)의 대규모, 화려한(조명정치) 아파트를 비롯하여, 높은 소비수준 향유의 있는 문수물놀이장과 아이스링크, 백화점, 외국 음식점 등을 건설하였다.
- 이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혁신과 발전=통이 큼’이라는 정치적 메시지 전달에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② 경제개혁 조정기 I (2017~2020) : 우리나라제일주의 담론 속에 지방건설 사업 추진했으나, 대북제재 본격화에 대응한 ‘자력갱생 강조’로 성과 미흡·인정

57) 『북한법령집 (上)』, 국가정보원, 2024, pp.1231~1243.

58) “날마다 전해지는 새집들이소식으로 온나라가 흥성인다,” 『로동신문』, 2024.6.10.

59) 한기범, 『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 북한의 경제개혁과 관료정치』, 북한연구소 총서, 선인, 202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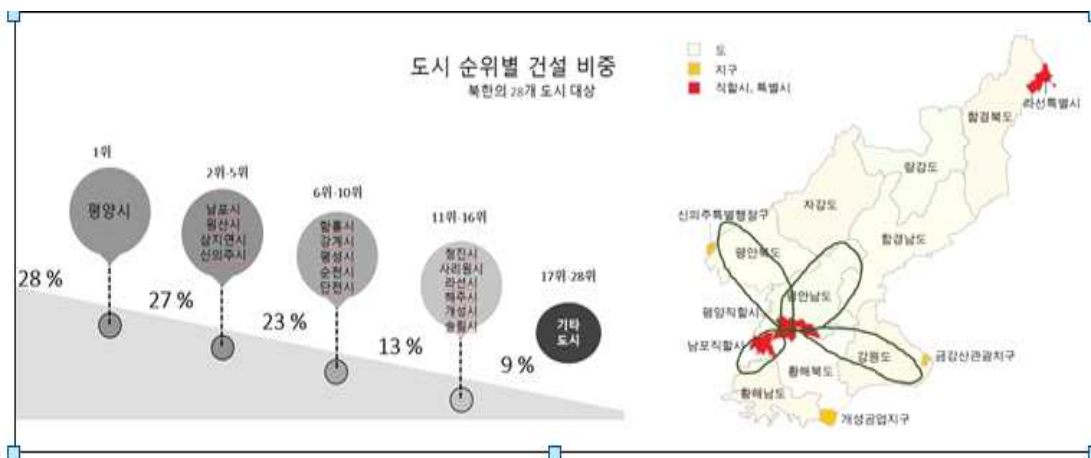
60)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4월 27일.

61) 사회주의 문명국이란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 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 넘치는 가장 선진적인 문명국을 의미한다.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62) 박희진, “평양시 현대화: 개혁과 통치의 조응,” 이화여대 북한연구회 엮음, 『김정은 체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8, p. 23.

- 7차 당대회(2016. 5)의 강력한 정책 비전 제시하였으나, 2018년부터 대북제재 효과의 본격화 등으로 국가경제발 5개년 전략 실패를 인정하였다.
- 대북제재의 본격화로 이에 맞서 자립경제를 강조하면서, 인민들을 향해 애국심과 투쟁열을 고취하고 경제건설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우리국가제일주의’를 통치 담론으로 내세웠다.
- 이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건설사업은 오히려 더 크고 더 웅장하게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건설사업이 지방의 삼지연시(2018-2021년)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2018-미완성) 건설사업이며, 양덕온천문화휴양지(2019.12)와 중평남새온실농장(2019.12)도 이 시기 대표 건설사업으로 손꼽힌다.
- 예컨대, 삼지연시 건설의 성과를 토대로 지방건설사업을 촉발시켰는데, 2019년 북한은 건설에서 도별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건설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⁶³⁾ 따라서 전국적 건설사업의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 각 부문과 영역에서 ‘본보기 단위’를 건설하고, ‘강제적 따라하기’ 건설을 추동하기 시작하였다.
- 그러나 이 시기의 건설사업은 평양과 달리 건설 자원이나 시공 능력 등은 물론, 취약한 지방 재정과 돈주 기반, 아파트와 여타 건축물에 대한 제한적 수요 등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평양시에서 멀어질수록 건설사업 추진 비중이 낮아 불균등한 개발 격차를 보였다.⁶⁴⁾

< 김정은 시대의 도시 건설 비중 >



자료: 박희진, “김정은 시대 10대 도시의 개발과 격차(Gap),” pp. 213~215.

- ③ 경제개혁 조정기Ⅱ(2021~현재) : 평양 주택 5만호 건설과 지방살림집 건설 확대 등을 통한 인민대중제일주의 담론 강조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발표(2021. 1) 발표와 균형발전 정책 추진 시기이다. 2021.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은 총비서로 추대되었고, 김일성-김정일주의와 함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 규약에 삽입하면서, 이를 공식적인 기본 정치방식으로 채택하였다.⁶⁵⁾
 - 인민대중제일주의 담론은 북한 건설사업의 방향을 시·군 지방발전으로 잡고⁶⁶⁾ 모든 건설사업의 선차적 건설 대상을 주택건설로 삼으면서 ‘인민생활 향상’에 맞추었다.

63) “도들 사이의 경쟁열풍으로 나라의 전반적, 전면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자,” 『로동신문』, 2019년 3월 16일.

64) 2018-2020년 북한 공식간행물에서 건설과 관련한 보도 건수를 총 1,376건 집계하여 도시별 통계를 제출한 결과임(박희진, “김정은 시대 10대 도시의 개발과 격차(Gap),” pp. 213~215)

65)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로동신문』, 2021. 1. 10.

66) 북한은 8차 당대회 이후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21.3.)를 조직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4차 제5차회의(21.9)에서 시·군의 강화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시군발전법’을 채택한다.

- 여기에는 평양시 5만 세대 건설과 농촌살림집 건설,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 등이 5개년 계획기간의 목표로 제시되었으며, 기타 농촌지원사업도 포함되었다.
-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건설사업이 위축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본격적인 농촌살림집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 특히 ① 평양(18%)보다는 비평양(82%) 지역에서 더 많은 건설이 진행되었으며, ② 주택살림집 건설을 포함하여, 인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유형들을 중점적으로 건설하였으며, ③ 「살림집법(개정 2021.7.6.)」 제3조를 통해 국가 부담으로 현대적인 도시살림집과 농촌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보장해주고 있으며⁶⁷⁾ ④ 인민대중제일주의 담론 아래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통치자의 선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인민들에게 애민과 통제(충성)의 거대한 체제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이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곧 수령제일주의로 귀결되도록 하는 매커니즘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민대중제일주의 담론에 의한 이민위천, 즉 애민을 강조하고 있지만, 애민정책이 주민들에게는 각종 사상교양과 헌신노력의 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전통 체제의 통치 담론이 재현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⁶⁸⁾

< 최근 북한의 건설 보도 건수 >



자료: 박희진, “김정은 체제의 통치담론과 건설동학,” 『김정은 체제 북한 건설, 맥락과 한계』,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강원통일교육센터 연합컨퍼런스, 2024. 6. 14. p. 15.

- 종합하면 2024년 현재, 김정은의 주택건설 정책은 일단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양적 측면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목표치에 근접하거나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평양 비대화와 도농 불균형 발전 등의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통치담론 측면에서도 민생안정과 인민대중제일주의 실천을 통해 대내 결속 강화와 충성경쟁 유도, 대북제재 속에서도 자력갱생과 대외 압박 버티기 등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⁶⁹⁾
- 특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의 살림집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원칙 하에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의 위상을 가지며, 제시했었던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인 ‘인민경제 활성화와 인민생활 향상의 토대 구축’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67) 법무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2021.7.6. 수정보충),”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 검색일: 2024.8.25.)

68) 임수진, “북한 ‘대동강’ 기사를 통해 본 김정은정권 ‘인민’ 동원 담론의 변용 : TF-IDF 분석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도시사학회, 제37호, 2024, 11. pp. 75-99.

69) 홍순직, “김정은 시대의 도시·주택 건설 정책 특징: 평양 살림집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13권 제1호(통권 27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3. 4. pp. 65~68.

- 또한 경제 부문의 하위 부문인 건설 부문에서 ‘건설의 두 전선’으로 설정한 ‘경제토대 강화를 위한 산업건설’과 ‘인민 물질문화적 수요 보장’도 일정한 성과를 설정하였다.

< 북한 당국 발표의 평양시 건설사업 실적(2021~2024. 8) >

구분	사업명 / 위치	사업기간	사업내용	세대수	비고(입사대상 등)
평양시 5만 세대 건설 사업	송화거리/평양 남측의 상대적으로 낙후한 농촌지역	2021.3.23. 착공 2022.4.12. 준공	5만 세대 첫 사업, 80층 초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1만 세대	1만	철거지역 주민, 공장 종업원, 무의무탁자 순
	화성지구 1단계 / 금수산태양궁전과 백화원초대소 인근	2023.4.16. 준공	5만 세대 두 번째 사업	1만	국방과학원 연구사들, 평양시 각 부문과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들
	화성지구 2단계 (림흥거리)	2023.2.15. 착공 2024.4.16. 준공	5만 세대 세 번째 사업	1만	일반 노동자, 영예군인, 전쟁로병, 제대군관 등
	화성지구 3단계	2024.2.23. 착공	5만 세대 네 번째 사업	1만	“40여 일만에 골조공사 결속”(2024.4.10.)
별도 사업	경루동지구/ 본평양 지역의 보통강변	2022.4.14. 준공	12만㎡ 부지에 800세대 건설	800	모범 노력혁신자, 공로자, 과학인재 등 근로자들
	서포지구(전위거리)/ 평양의 북쪽 관문지역	2023.2.25. 착공 2024.5.14. 준공		4,100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육자 가정과 다자녀 세대 등
	대평지구	2021.9월 시작 2023.5.21. 준공	다층, 고층 살림집, 학교, 진료소 등	1,400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민들

자료 : 토지주택연구원, “2024년 1,2분기 살림집 사업 현황“, 『북한건설개발동향 2024. 1,2분기』, 2024. 7. 31.
pp. 58~61. p. 59.를 활용하여 작성

3. 지방발전20×10정책 : 지방공업 활성화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과 불균형 해소

- 지방발전20×10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매년 지방에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여 인민들의 기초적인 물질생활 수준을 개선시키겠다는 계획으로, 평양과 지방간 혹은 지역간 생활 수준 격차를 줄이겠다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 이는 2024. 1월, 당 중앙위원회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공식화되었는데, 북한이 주장하는 모든 부문의 균형적·동시적 발전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론’ 실현을 위한 주요 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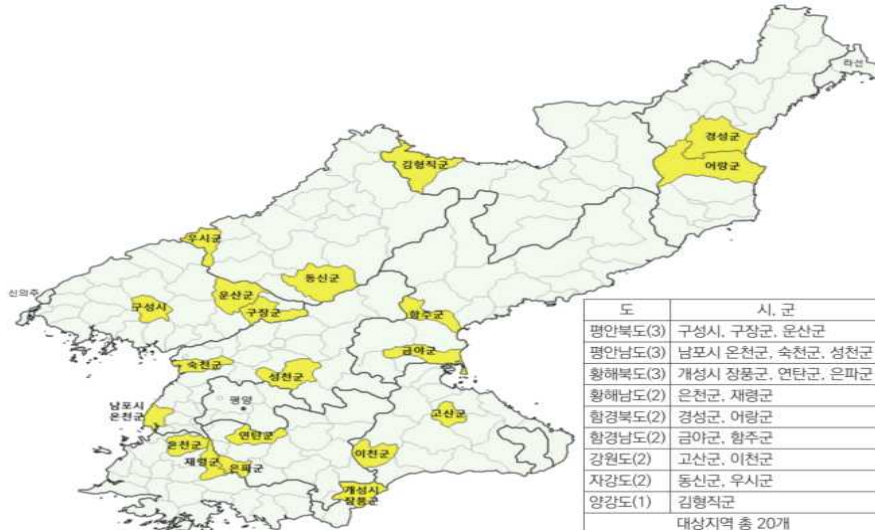
<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목표	• 지방경제의 특색 있는 발전 및 경쟁력 확보 • 지방공업의 전면적, 균형적 발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향후 10년 내에 전국의 모든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수준 개선
당면 과제	• 매년 도별로 2개의 군을 선정, 식료공장, 기초식품공장 등 지방공업공장의 건설 •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료기지 조성 및 기술자 양성 • 지역단위에 보건시설, 과학기술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 건설
후속 조치	• 조직 정비 - 당 조직지도부 산하 지방공업건설지도과 별도 설치 - 지방발전 20×10 비상설추진위원회, 지방발전 20×10 비상설도추진위원회 조직, 지방발전 20×10 비상설 국방성 지휘조 조직 • 법 제도 정비 - 지역 단위에서의 예산 운용 상의 절차 간소화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 역할 확정 - 중앙 당 차원에서 자금, 노동력(124연대), 자재의 지속적 보장 담당 -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이 지역별로 담당하여 건설 추이 감독 - 완공 후 운영 준비 및 유지발전방안 마련 사업은 지방의 당 및 행정기관 담당

자료: 『로동신문』, 2024. 1. 25.; 2024. 2. 28.; 2024. 3. 11.; 2024. 3. 27.을 토대로 작성

- 1차년도 사업지역의 선정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역의 낙후성 외에 성공가능성 측면에서 철도와 도로, 전력, 해당 지역의 지방공업(경공업) 가동에 필요한 기존의 산업 기반, 인력 및 원부자재 조달의 용이성, 생산물 공급의 효과 및 주민생활 향상에 가시적 성과가 큰 지역 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선정 지역은 2008년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중규모의 군급 행정구역이며, 평균 도시화율은 40.1%로 소속 도의 평균과 유사하거나 낮은 편이다. 또한 대부분 중소규모의 공장으로 역량은 미흡하지만, 중소형 수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 내에 의류, 식료품, 일용품공장을 가지고 있어 지방공업 중심의 산업기반이 구축되어 있거나, 음식료공업 가동에 필요한 농림어업 자원들이 풍부한 편이다.
- 20개 지역에서 확인된 지방(미상 포함) 소속 공장·기업소는 총 248개소로, 그 중 2010년 이후 생산·투자활동이 알려진 곳은 119개소(47.9%)이다. 또한, 중앙 소속 공장·기업소 중 2010년대 생산 및 투자 활동이 확인된 지역은 7곳(13개소)으로 평안도(7개소)와 함경도(6개소)에 편중해 있고, 경공업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⁷⁰⁾

< 지방발전20×10정책의 1차년도 개발대상지역 (20개) >



지역		업종별 비중 및 제조업체수 / 대표공장	인프라		
			발전소(수력)	철도	도로
개성시	장풍군	장풍식료공장, 장풍피복공장, 장풍종이공장, 장풍군영예군인문화일용품공장	십탄	-	1급, 2급, 3급
남포시	온천군	온하대성식료공장, 온천대성식료공장	-	평남선, 남동선, 용강선	2급
평안북도	구성시	구성방직공장, 구성담공장, 구성식료공장, 구성피복공장, 구성공작기계공장	구성풍산	평북선, 구성선	2급
	구장군	구장군식료공장, 구장세멘트공장	추장청년	평덕선, 만포선, 팔원청년선	고속, 1급, 3급
	운산군	운산메기공장, 운산식료공장	-	운산선	3급

70) 김수정,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분석과 전망,” 『KIET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24. 10. pp. 41~46.

평안 남도	성천군	성천제사공장, 대봉음료공장	-	평덕선, 평라선	1급
	숙천군	숙천장공장, 숙천진성피복공장, 숙천대동강피복공장, 숙천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	평의선, 안주탄광선, 남동선	고속, 1급, 2급
황해 북도	연탄군	연탄식료공장, 연탄군가구, 생산협동조합, 연탄군버섯공장, 연탄봉화피복공장, 연탄군화학일용품공장, 연탄세멘트공장	연탄, 신흥, 연탄호	-	2급, 3급
	은파군	은파군장공장, 은파피복공장	은파호, 광탄, 은파	황해청년선, 은물선	3급
황해 남도	은천군	은천장공장, 은천군영예군인식료공장, 은천군옷공장	송봉	-	2급
	재령군	재령식료공장, 재령봉화피복공장, 재령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	은물선	1급, 3급
함경 북도	경성군	경성은하피복공장, 경성애자공장, 경성도자기련합기업소, 경성전기기구공장, 경성타일공장	온포	평라선	1급
	어랑군	어랑영예군인어구공장, 어랑은하피복공장, 어랑기초식품공장, 어대진수산사업소	어랑천, 어랑청년, 주북천, 룡천, 주남천청년	평라선	1급
함경 남도	금야군	금야견직공장, 금야은하피복공장, 금야영예군인일용품공장, 안흥장공장, 금야군기초식품공장, 광명성제업소	금야강	평라선, 풍남선	1급, 2급
	함주군	함주폐지공장, 함주은하피복공장, 함주군장공장, 함주영예군인일용품공장, 함주식료가공공장, 함주군세멘트공장, 함주군일용품공장	추상, 금진강홍봉	평라선	1급, 3급
강원 도	고산군	고산기초식품공장, 고산과일가공공장, 고산화학일용품공장, 고산종이생산협동조합	고산군민	강원선	1급, 3급
	이천군	이천군식료공장, 이천군종이공장	옥계천, 신당, 송정천, 이천군민	청년이천선	2급
양강 도	김형직군	후창성냥공장	남사강	혜산-만포 청년선	2급
자강 도	동신군	메기공장	생리, 동신	개고청년선	1급, 2급
	우시군	우시식료공장, 우시장공장, 목재가구공장, 기초식품공장, 우시독공장, 우시군종이공장, 우시군세멘트공장	우시, 하창	-	1급, 3급

자료: 1) 김수정,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분석과 전망,” 『KIET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24. 10. pp. 38~48(41~46)

2) 최은주, “북한의 국가발전전략과 지역발전 정책,” 『북한의 지역발전전략과 對러시아 관계 전망』, 2024 공동학술회의,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24. 11. 20. pp. 25~26.

○ 추진 배경과 목표

- 북한은 2021년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론’을 제시하고 김정은식 지방(시·군) 및 지방공업 발전 정책 추진을 통한 지방 차원의 자력생산을 모색 중에 있다.
-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론’은 정치·국방건설·경제·문화 간, 인민경제 부문 간,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골자로 하고 있다⁷¹⁾
- 2021년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모든 시·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국가의 전략적 거점화, 자기 고유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화’하는 것을 목표로 언급하였다.
- 제8차 당대회 결론에 이어, 동년 2월 당 중앙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강원도 김화군을 ‘본보기’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2년 6월에 식료·옷·일용품·종이공장 등을 완공하여 운영

71)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해나가자,” 『로동신문』, 2021. 10. 30.

- 특징 :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비해 중앙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당 차원에서 중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관련기관들과 협조체제를 구축·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다시 말해, 중앙 차원에서 당의 조직지도부 산하에 지방공업건설지도과를 별도로 설치하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에 각 지역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중앙차원에서는 자금과 자재, 노동력 공급을 담당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공장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원료기지 조성 및 숙련노동자 양성 사업을 담당한다. 공장 및 시설건설과 관련해서는 인민군대에 일임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발전20×10 비상설국방성지휘조를 구성하고 20개의 현장에 124연대를 파견하여 건설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환경 악화로 ‘정면돌파전’과 ‘민족적 자립 경제노선’을 유지·강화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중앙 당국 차원에서 지방공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해석된다.
- 또 다른 특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방공업공장건설 사업에서 보건 및 과학 부문에 대한 건설 사업을 추가하는 등 지역단위의 개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 기존의 지방공업공장 건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군대들이 보건시설, 과학교육 및 생활문화시설, 양곡 관리시설의 건설도 담당하여 시설 확보 사업부터 우선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⁷²⁾ 특히 과학기술 보급 거점을 종합적인 문화생활 거점으로 확장하여 영화관, 체육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이 모두 망라된 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할 것을 지시하였다.⁷³⁾
- (향후 전망) 김정은 시대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실현과 주민생활의 실질적 향상이란 통치체제의 정당성 확보 수단은 물론,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산업 발전 차원에서 지방경제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1차연도의 20여개 시와 군의 지방발전 정책은 공장건물의 건설 공사는 김정은의 수차례 해당 지역 방문 등으로 보아 연내 완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9월 30일자 노동신문에서는 건축 공사의 진행 수준이 90% 이상이라고 보도되었다. 전국적으로 공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방공업 공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활동(철강재, 건설 자재, 전기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계) 빈곤의 함정(poverty trap)과 대북제재에 놓여 있는 북한으로서는 결국 대중 노력 동원과 내핍경제의 장기화가 지속될 경우, 자금, 자재, 노동력 등 개발 자원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생산공정의 정상적인 가동 시점도 예상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24년의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력 문제 관련 대책이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각 지역에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이 필요할 경우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 또한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서는 산업설비, 기술, 인력이 투입되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과학연구기관, 대학을 중심으로 식료품, 피복, 일용품, 종이생산 공정에 필요한 설비의 설계, 설비 시제품 제작, 제품 도안 마련이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보도가 부족한 편이다.
 - 더욱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은 10년 간의 장기 프로젝트로서 상당한 개발 재원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평양시와 농촌에 전개되고 있는 대규모 살림집 건설 사업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7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북도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24.10.6.

7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에 즈음하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4.9.10.

Ⅳ. 결론 : 요약 및 시사점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비교적 성과를 내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 부문은 평양과 농촌의 주택 건설과 지방발전20×10정책 이행이다. 우선 주택 건설 부문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평양주택 건설 5만호 건설 계획 중 이미 4.5만 세대 이상을 완공·예정이며, 농촌 살림집 역시 현재 건설 중인 주택이 완공되면 11.4만 세대가 될 정도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이전과 달리 주택의 공급 규모와 지역의 확대, 대상의 확장, 그리고 살림집 관리법 등의 제도 정비 차원에서도 이전과 다른 혁신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통치전략 차원에서도 주택 건설을 사회주의 체제의 프로파간다(선전·선동) 목적의 전시적 공간으로 활용하여 극장국가로서의 정치적 연출을 극대화함으로써,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전략을 구현하고 평양을 정치적 선전도시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이 꿈꾸는 ‘먼저 온 사회주의 선경’(건설 부문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달성의 정치적 선전 공간으로 활용되었다.⁷⁴⁾
- 특히 평양주택 5만호 건설 정책은 초고층 주택, 첨단인 다양한 부대시설 구비와 휘황찬란한 빛·조명의 고급화 추이, 그리고 과학자와 간판아나운서(리춘희) 등에 대한 통큰 선물정치를 통한 충성심 유도 등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평양의 비대화와 여타 도시 간 격차 확대로 사회주의 건설 정책과 상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단기 대규모 주택 건설에 대한 후속 인프라 확충의 부족으로 불균형 정책 완화라는 당초 목표 실현에 대해서는 한계를 보였다.
- 한편 지방발전20×10정책은 선정 기준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첫 해인 올 한 해 동안의 추진 과정과 결과로 추정하건대, 새 출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
- 이번의 지방발전정책은 ‘인민생활 향상(소비)’보다는 ‘산업 개발(생산)’ 측면이 강한 듯하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등에서 외부 수혈 없이는 만성적인 경제난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력갱생이라는 폐쇄·고립의 경제정책으로 과연 지방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 더욱이 기후변화와 기술진보 및 디지털 산업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생필품 위주의 경공업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지적되기도 하기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과에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 다시 말해, 전력과 원부자재 부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생필품 위주의 주민생활 향상 정책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으나,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통상적인 경제의 효율성(지방단위의 소규모 경제 운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 결여, 첨단산업이 아닌 경공업·노동집약산업 위주의 미래 사업성, 지속발전가능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산업 전략과 국가 전체 차원의 경제성장 전략 등)에서는 효과에 의구심이 존재한다.
- 종합하면, 지방발전20×10정책은 물론, 건설의 두 전선으로 설정했던 부문에서 ‘경제 토대 강화를 위한 산업 건설’ 측면에서도 과연 주택건설이 단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북한 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장기적인 북한 경제의 지속발전 가능성 기여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 과거 한국과 같은 저개발국의 일반적인 발전경로는 대외 개방을 통한 수출 증대와 산업화를 선행하고, 그 이후에 도시개발 압력이 증가하면서 대규모 주택 개발을 진행했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 따라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이를 통한 외부 수혈로 경제개발구 및 지방발전20×10정책의 성과를 통해 경제 회복과 산업 진전, 산업 인프라 확충 이후에 본격적인 대규모 주택개발로 이어져야만 지속적인 ‘산업 개발과 인민생활 향상’의 두 수레바퀴가 정상적으로 선순환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국가균형발전전략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74) 김정은 시기에 유희·오락시설에 대한 현지지도가 급증한 것은 김정일 시기와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북한은 이를 사회주의 선경 모델에서 ‘사회주의 지상낙원 건설’ 및 ‘사회주의 부귀영화 향유’의 징표로 선전·선동하였다.

북한의 뉴미디어 정치 축제의 현황과 의미

조민주 (덕성여자대학교)

1. 서론: 사회주의 축제에 대한 시각적 재현

축제는 지구상 모든 나라에서 도시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한은 태양절 행사나 공산당 건립기념일 혹은 외빈 방문시 <아리랑공연>, <빛나는 조국>과 같은 대집단체조(매스게임)를 보여주며 사회주의 축제의 흥을 끌어 올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북한에서는 수만명의 젊은 시민들이 3~6개월간 본업을 뒤로한 채 행사 준비에 공을 들인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에 의해 수만 명의 무용수가 하나의 통일된 몸짓으로 전체주의 사회를 시각적으로 표상하는 퍼레이드, 카드섹션, 전통무용 등을 공연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 희귀성을 대변하듯이 실제로 아리랑공연은 2007년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 집단 퍼포먼스는 수많은 참가자가 하나의 통합된 시각효과를 만들기 위해 무용수 개인의 신체적 자율성을 심하게 억제하고 통제되어야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미셸푸코(Michel Foucault)는 “신체는 권력이 각인되는 장소이며, 사법적 권력과 생산적 힘이 교차하는 접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⁷⁵⁾ 최근 아리랑 공연과 같은 정치 축제를 담아낸 서구의 보도사진과 예술작품은 공연의 시각적 웅장함뿐만 아니라 ‘전체와 개인’간의 불편한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정치 축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 정부도 최근들어 수만명을 동원하는 정치 공연대신 뉴미디어를 사용해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빛과 영상으로만 구성된 행사를 구성해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에 진행되는 축제의 형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라보는 북한 밖의 언론과 예술계의 시선을 분석한 후 미디어로 교체되는 북한 최근의 현황을 파악해보겠다.

2. 예술사진과 보도사진에서 보여지는 북한식 정치 축제

2014년 영국 BBC의 아리랑공연에 대한 보도에서는 7월 29일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기념 대집단체조의 현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 기사에서는 수 만명의 무용수들이 손발을 맞춰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통해 북한 시민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 보도사진에서는 북한의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겨있다. 이보다 일찍 동독출신 사진작가 안드레아 거스키는(Andreas Gursky)는 북한의 집단공연을 직접 보고 이를 작품으로 담기 위해 북한당국에 여러 차례 방문을 요청해 2007년 아리랑 공연을 소재로 <평양 시리즈

75) 김영희, 『푸코와 북한사회 신체왜소의 정치경제학』, 인간사랑,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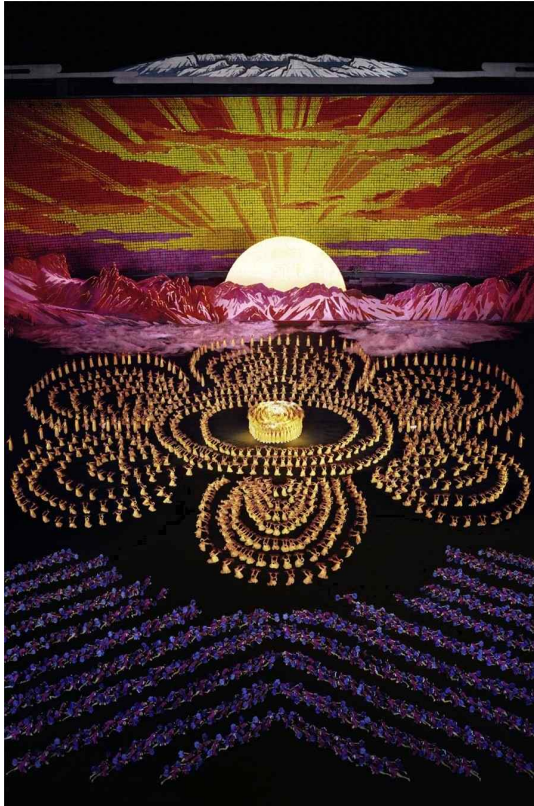


그림 19 평양 VI, 2017(2007), 아모레퍼시픽 소장.



그림 20 평양 VI 무용수 부분.

(Pyongyang Series)>를 완성할 수 있었다.⁷⁶⁾ 거스키는 동서독 분단과 통일을 직접 경험한 작가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동시에 비판하는 세계적인 작가이다. 그는 어느 하나의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정체 체제안에서 벌어지는 개인에 대한 무관심과 통제, 그리고 억압을 냉철하게 탐색하고 사진에 담아내고 있다. 2007년 거스키는 마침내 북한당국의 허가를 받아 평양으로 건너가 아리랑공연을 관람하였고 디지털편집기법을 가미한 대형 사진작업을 통해 <평양 시리즈>를 완성했다. 거스키의 <평양시리즈>는 사회주의 축제에서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나 통일된 몸집에 주목하기보다는 공연의 화려한 색감과 시각적 예술성 그리고 참여한 무용수들의 다양한 표정과 불일치된 행동에 집중했다. 멀리서 보면 수많은 무용수가 하나의 통일된 동작을 하고있는 것 같지만 그의 작품 속 북한도 사람이 사는 사회로 통일된 전체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무용수들의 지루해하고 불편해하며, 짜증나고 판청피는 등의 불일치한 모습이 보여졌다. 그는 망원렌즈로 무용수 개개인의 모습을 일일이 다 촬영하여 수백가지의 표정을 포착했고 디지털 편집과정을 거쳐 개인의 표정을 담은 수많은 이미지에 각각의 소실점을 투영해 아리랑공연의 전체 풍경과 무용수 개인의 표정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나의 초점만 사용하는 사진작업의 한계를 디지털 작업을 통해 수백개의 초점으로 변환시키고 개개인의 모습을 한 화면에 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76) 2022년 아모레퍼시픽미술관 《Andreas Gursky》 개인전, <https://www.apgroup.com/int/ko/news/2022-03-31.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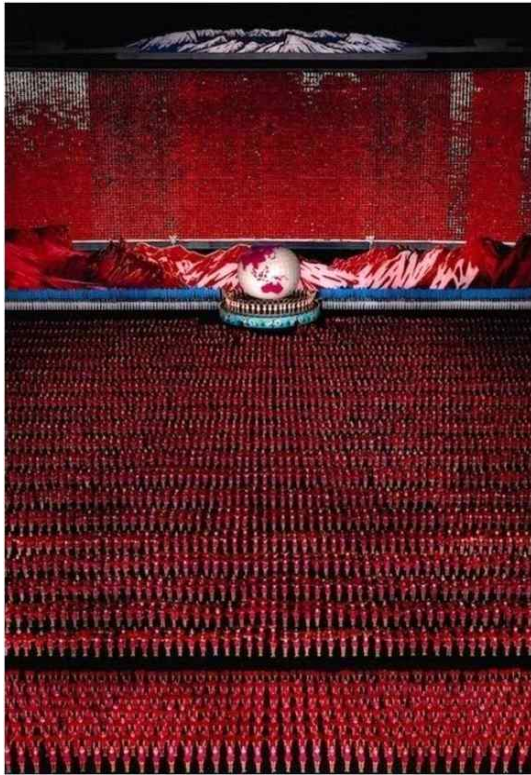


그림 21 평양 VII, 2017(2007), 아모레퍼시픽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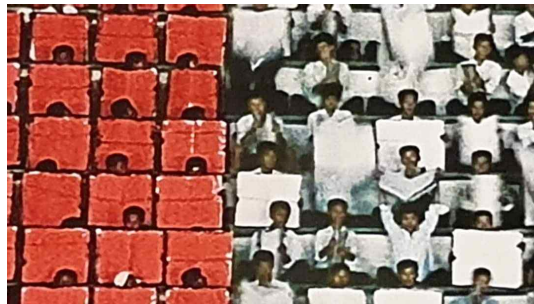


그림 22 평양 VII의 부분



그림 23 <In pictures: North Korean mass games> BBC NEWS, 2013.7.23.



그림 24 BBC 보도사진의 부분

3. 뉴미디어를 이용한 새로운 자기재현방식의 등장

실제로 최근 들어 국내 보도뿐만 아니라 북한의 언론 보도에서도 정치 행사에 동원된 강제 노동에 대해 평양시민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아리랑공연과 같은 집단체조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많은 수를 차지하며 4~6개월 동안 학업을 뒤로한 채 연습에 일로매진한다는 점은 북한 내부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는 “아리랑체조 공연을 관람하는 많은 관광객은 집단체조 참여를 강요받는 아이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훈련은 거의 1년 내내 진행되어 4~6개월간 수업도 듣지 못한 채 온종일 연습해야 하고,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체벌받거나 저녁 연습을 추가로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⁷⁷⁾

이러한 상황에서 2020, 2021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와 태양절 기념행사를 뉴미디어의 하나인 미디어파사드 기법을 이용한 야간 조명축제 <빛의 조화>로 대체한 일은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⁷⁷⁾ 인민동원의 대집단체조의 노동집약적 축제형태에서 뉴미디어를 이용한 행사로 탈바꿈하는 북한 정치 축제의 대단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조선중앙TV에 보도된 사진 속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개인의 시간을 희생하고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전체주의 행사에 참여하는 강제 노역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행사를 관람하러 온 관객이 되었다. 평양시 상업의 중심지인 평양 제1 백화점에서 개최된 미디어 축제 <빛의 조화>를 보러 온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미디어파사드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고 있다. 이미 핸드폰 보급률이 2023년 기준 71.2%일 정도로 시각미디어에 노출된 북한 시민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2020년 22분 넘게 진행된 <빛의 조화> 미디어파사드 영상과 인민들의 핸드폰은 밤 축제에 빛을 더하며 평양의 야경을 더욱 화려하게 물들여쥔. 반짝이는 빛으로 가득한 평양은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야경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미디어파사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예술과 대중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홍보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뉴욕, 런던, 베이징, 서울 등 수많은 국제도시에서 미디어파사드는 상업, 행정, 예술적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브랜드가치가 높은 뉴욕과 같은 도시들은 공공 랜드마크로 미디어파사드 스크린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타임스퀘어와 같은 곳의 대형스크린에서는 밤낮으로 상업광고에서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순수미술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디어파사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도시 경관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데에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대중에게 새로운 시각 예술을 선보이는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Interactive Communication)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타임스퀘어 미디어 스크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비비드 라이브세일, 베이징의 제로 미디어 월,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 센터, 서울의 SM타운 코엑스 아트리움과 동대문 DDP 등이 대표적이다.



그림 25 <빛의 조화>를 관람하며 핸드폰으로 녹화하는 북한 시민들, 조선중앙TV방송 영상 캡처화면



그림 26 2020년 <빛의 조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 미디어 파사드 영상. 22분17초

이러한 미디어 기술을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해서는 뉴미디어 시각 기술의 진보가 기반을 두어야 한다. 북한에서 선보인 <빛의 조화>는 북한의 자체적으로 개발된 미디어 기술의 현재를

77)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9997&C_CC=AZ

78) 이지순, 「김정은 시대의디지털스토리텔링- 북한의 새로운 공연양식 조명축제 <빛의 조화>」, 『한국예술연구』 제 34호, 2021, pp.259-285; 전영선, 「북한식 미디어 파사드 조명축제 <빛의 조화>」, 『북한』 597, 2021, p.72-77; 전영선, 「김정은 시대 북한 공연예술의 현황과 특징」, 『통일과 평화』 15(2), 2023, pp.89-119.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 파사드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중 한 가지 기술이 이미 구축되어야 한다: LED 조명 패널 기술, LED 디스플레이 기술, 프로젝션 맵핑 기술, 키네틱 기술.⁷⁹⁾ <로동신문>에 의하면 평양 제1 백화점에서 선보인 미디어 공연은 김일성 종합대학 과학자들이 개발한 “프로젝션 맵핑” 기술이 사용되었다. 프로젝션 맵핑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미디어파사드 기술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로 시각공간을 가상의 공간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젝션 맵핑은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원하는 이미지를 건물에 투사하는 기술로 여러 개의 빔프로젝터를 수평으로 정렬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구현할 수 있다. 2020년 6월 29일 <로동신문>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 연구진이 프로젝션 맵핑 기술 개발에서 수평정렬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고 2020년 2월 16일 과학기술상을 수상했다고 보도했다. 3개월 후인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완전히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공연 <빛의 조화>가 평양 제 1백화점 앞에서 22분 17초 동안 열렸다. 이때 김일성 물리학과 박희철 교수의 프로젝션 맵핑기술이 <빛의 조화> 미디어파사드 공연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 공연에서는 2020년 김정은 정권에서 이루어진 과학기술, 교육, 인적 자원에서의 혁신 및 국산 제품 개발의 성과를 소개하고, 산림 녹지, 홍수 복구 등의 역경을 이겨낸 사건을 집중적으로 선전했다.

4. 인공조명과 뉴미디어를 이용한 도시야경의 조성

<빛의 조화> 미디어파사드 공연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밤에 진행되었는데, 이는 평양의 야경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해온 김정은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평양 제1백화점이 위치한 상업지역에서 화려한 인공조명과 뉴미디어를 사용하여 평양을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풍경처럼 화려하게 보여주려는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 미디어파사드 뿐만 아니라 최근 평양에서는 과학자의 거리처럼 대동강을 따라 펼쳐지는 평양의 야경을 다채로운 조명을 사용해 화려하게 조성하고 있다.⁸⁰⁾ 이러한 조명과 뉴미디어를 통한 야경조성은 새로운 체제 선전과 사회통합의 방식으로 젊은 세대가 북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빛의 조화>와 같은 뉴미디어 쇼는 평양이라는 사회주의 도시의 낙후된 모습을 지우고 가장 선진적인 예술매체를 이용해 국제적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김정은의 대외선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정치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축제는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도시 전체를 스크린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경관 조성에 새로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Salovey와 Mayer에 따르면 “감성 지능은 개인의 적응과 변화를 촉진하며, 감정적 역량은 조직이 급진적 변화를 실현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⁸¹⁾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전물이 주로 시민의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이러한 뉴미디어를 이용한 북한의 선전영상물에서도 내용과 시각효과에서 모두 북한의 관습적 시각 경험을 고려하여 감성에 호소하는 이미지 재현에 초점을 맞

79) 임소남, 조정형, 「도시경관조명에서미디어파사드디자인활용유형과현황」, 『공공디자인연구』 vol.02(1), 2022, pp.19-29.

80) 조민주, 「김정은 시대의 미래과학도시 건설과 시각적 재현: 인상주의 도시풍경화의 유행」, 『아시아리뷰』 13(1), 2023, p.73-98.

81) Salovey, P. and Mayer, J.D.,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9, no.3, pp.185-211.



그림 27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한반도(출처: 테슬라 CEO Elon Musk 소셜미디어)



그림 28 평양 제 1백화점 낮 풍경(출처:KBS)

췌다. 이러한 시각적 성과가 북한 시민들의 ‘감성 지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4. 결론

사실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위성사진에서 봤듯이 북한 전역은 심각한 전력난에 직면해 있다. 이미 많이 공개된 북한의 야경을 찍은 위성사진에서는 평양과 일부 도시를 제외한 북한 지역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다. 게다가 2020년과 2021년에 미디어 파사드 공연의 스크린으로 사용된 평양 제1백화점은 낮에 보면 낡고 오래된 한국에서는 백화점으로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최근 센티널-2() 위성 인공위성이 촬영한 북한의 야경과 이에 대한 AI 분석으로 도출된 경제지표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⁸²⁾ 이 연구는 북한의 야간 조명 수준을 기반으로 경제 상황이 수치화되었으며,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유엔 대북제제가 심화되었을 때 경제 개발이 평양과 대도시에서 더 집중되었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북2020년 북한의 미디어파사드 공연 및 야경 조성은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도시경관을 더욱 부각하고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북한 정부의 또 다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빛을 통해 어둠을 감추고 도시를 재건하는 브랜드화 전략은 김정은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를 재현하는 또다른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앞으로 뉴미디어를 통한 도시 브랜드화 전략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와 글로벌 도시브랜드 가치형성의 문제로 확장된 연구해 볼 수 있다.

82) 양재혁 등, 「인간-기계 협업모델과 주간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 경제발전 추정」, 『대한지리학회』, 2023; 이시효, 김성배, 기정훈, 「평양 모자이크 위성사진과 GIS를 활용한 평양 도심 15개 구역 빈부격차 연구」, 『현대북한연구』 26권1호, 2023, p.45-83.

<참고문헌>

- 김영희, 『푸코와 북한사회 신체왜소의 정치경제학』, 인간사랑, 2013.
- 양재혁 등, 「인간-기계 협업모델과 주간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 경제발전 추정」, 『대한지리학회』, 2022
- 임소남, 조정형, 「도시경관조명에서미디어파사드디자인활용유형과현황」, 『공공디자인연구』 vol. 02(1), 2022, pp.19-29.
- 이시효, 김성배, 기정훈, 「평양 모자이크 위성사진과 GIS를 활용한 평양 도심 15개 구역 빈부격차 연구」, 『현대북한연구』 26권1호, 2023, p.45-83.
- 이지순, 「김정은 시대의디지털스토리텔링- 북한의 새로운 공연양식 조명축전 《빛의 조화》」, 『한국예술연구』 제 34호, 2021, pp.259-285
- 전영선, 「북한식 미디어 파사드 조명축전 ‘빛의 조화」, 『북한』 597, 2021, p.72-77
- 전영선, 「김정은 시대 북한 공연예술의 현황과 특징」, 『통일과 평화』 15(2), 2023, pp.89-119.
- 조민주, 「김정은 시대의 미래과학도시 건설과 시각적 재현: 인상주의 도시풍경화의 유행」, 『아시아리뷰』 13(1), 2023, p.73-98.
- Salovey, P. and Mayer, J.D.,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9, no.3, pp.185-211.
- 2022년 아모레퍼시픽미술관 《Andreas Gursky》 전시
<https://www.apgroup.com/int/ko/news/2022-03-31.html> (2024년 8월 방문)

□ 제4논문

재현의 재현을 보는 시선: 중국인이 보는 북한식당과 ‘북한적인 것’

김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 문제제기

북한은 재현이 불가능에 가까운 연구대상이다. 정보와 교류가 -특히 남한에게는 더욱- 차단된 대상이기 때문이다. 많은 북한 연구들이 탈북자들의 구술을 통해 북한에 대한 ‘사실(fact)’들을 획득한다. 그런데 구술에서 사실을 추출하는 것은 이미 구술자의 해석을 거친 것이다. 반면 북한체제의 공식적 재현은 선전으로 간주하면서 연구의 가치를 부정하곤 한다. 공식 재현을 선전으로 간주하고 북한의 실상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북한의 재현 전략도 북한 이해의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에게도 북한에 대한 사실과 정보는 거의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와 불신 가운데서도 재현을 접하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북한을 둘러싼 재현과 그것을 보는 시선의 관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재현하고, 외부자들은 일정한 해석틀을 담은 시선을 갖고 그 재현을 해석한다. 우리가 다룰 북한식당은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소비의 유사-자유의 층위에 놓인 ‘작은’ 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재현과 시선이 충돌하는 장인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북한식당의 재현을 해석하는 중국인들의 시선과 그 해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북한식당이 가장 많은 설치된 국가다.

북한식당은 일종의 초국적이면서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북한 관광경험을 가능케 한다. 외환 획득이라는 경제적 목적과 북한 체제 선전이라는 정치적 이념적 목적 두 가지는 북한 관광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며 북한식당이 설치된 요인이기도 할 것이다.⁸³⁾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북한식당 ‘공급자’ 측면만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식당이라는 북한 국경 외부의 소비공간에서는 북한인과 외국인(남한국민 포함) 간에 일상적인 상호교환과 소통이 -비록 제한적이거나-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평범한 중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북한식당이 재현하는 것들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진다.

2. 기존 연구 검토, 연구 대상과 방법

기본적으로 북한식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식당을 통한 북한음식문화의 전파와 변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지만, 지나치게 음식문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학술적 가치를 찾기는 어렵다(Lim, 2020; Tara Sonenshine, Paul Rockower and Kimberly Redd, 2016).⁸⁴⁾ 본 연구의 주제인 북한식당의 재현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시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 젠더화된 초국적 공간으로서 북한식당을 고찰한 연구가 최근에 등장했다. 특히 민족적 동질감과 민족 내 인종화의

83) 전경용. “해외 북한식당 이용? 김정은에 ‘달려 상납’하는 격.” <뉴데일리> 2016.02.15. (검색일: 2024년 7월 30일)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6/02/15/2016021500044.html>

84) Tara Sonenshine, Paul Rockower and Kimberly Redd, “Culinary Diplomacy, Gastrodiplomacy, and Conflict Cuisine Defining the Field,” in *Is the Kitchen the New Venue of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american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2016), p. 9-11,
www.american.edu/spa/gov/first-ladies/upload/kitchen-as-the-new-venue-of-foreign-policy.pdf

동시발생을 지적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같은 종족 내에서도 인종화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남북관계의 온도에 따라서, 인종화의 강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식당뿐 아니라 어떠한 다른 대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연구는 이주의 여성화(Piper, 2008)라는 글로벌 이주노동 연구의 핵심을 반영하여 북한 식당의 여성종업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다만 젠더화와 인종화가 ‘교차’ 되고 연계되는 매커니즘을 고찰하지는 못한 듯하다(이지연, 2023).

그렇다면 중국은 북한식당을 어떠한 시선으로 해석하는 것일까?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에 중요한 단행본 연구가 나온 바 있다(박명규·백지운 편, 2017).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의 시선은 물론 같지 않다. ‘경로의존적 시각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고정불변하지 않고 시기에 따라 변동한다(박명규, 2017: 11). 특히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윤정은 중국인의 북한 ‘본토 관광’ 기록들을 다루면서, 중국인의 북한을 보는 시각을 ‘신비의 나라’, ‘사회주의 노스텔지어’, ‘호기심’ 등으로 분석하였다(주윤정, 2017).⁸⁵⁾ 존 어리에 따르면, **관광객은 대체로 관광의 대상을 ‘타자화’ 하지만, 시선에 놓인 대상이 관광객과 관광객이 속한 사회의 ‘거울’로 작동하기도 한다(Urry, 2021)**. 중국인들은 그렇다면 북한식당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러한 해석은 어떻게 중국 사회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 동영상플랫폼의 북한식당 재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주요 동영상 플랫폼(빌리빌리bilibili, 시과스핀西瓜视频, 도우인抖音)에는 북한식당을 방문하거나 소개하는 동영상이 많지는 않다. 따라서 쇼츠까지 포함하여 검색할 것이며, 시기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잡고, 대상 선정 기준은 미정이지만 영상의 절대적 수는 많지 않으므로 일단 최대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예상 텍스트]

동영상 채널	크리에이터	업로드일	제목
빌리빌리 bilibili	飞向月球的田二哈	2021.06.10	穿越到平壤吃晚饭，听朝鲜姐姐唱神曲！
	陈无忧在囧途	2020.01.13	朝鲜？上海尽然开着两家朝鲜国营餐厅，清一色朝鲜小姐姐服务员
	虎先生tiger	2023.05.28	朝鲜美女，在中国当服务员！实地探访吉林的餐厅，里面全是朝鲜美女服务员
	채이在中朝边境	2022.11.24	朝鲜妹子在中国，他们出门都是成群结队的，不单独行动
	雷斯林raist (21.7만)	2021.08.13	开在上海的朝鲜国营餐厅，服务员全是平壤美女大学生
시과스핀 西瓜视频	冒险雷探长 (748만)	2020.12.21.	在朝鲜饭店过生日是种什么样的体验？
	起飞一仔 (62만)	2024.04.25	再也不用去朝鲜啦！上海的朝鲜歌舞团餐厅！
	雪梨同学sherry (2.5만)	2023.04.01	探险朝鲜国营餐厅，服务员高颜值且才艺满满？北京望京玉流馆
	不辣嫂子的异地Vlog (30만)	2021.04.15	北京消费到底有多高？8人花了4000吃朝鲜菜！没吃饱还得说好！

85) 또 하나의 시각으로 중조우의론의 관점도 있으나, 필자가 보기에 중조우의론 시각은 중국과 북한의 형제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사회주의 노스텔지어는 북한을 아직 사회주의를 지키고 있는 모범국가로 인식하긴 하지만, 큰 틀에서 중조우의론은 사회주의 노스텔지어에 포함된다고 생각되어 중조우의론은 생략하였다.

	吃货请闭眼 (232만)	2022.01.04	北京的朝鲜国营餐厅，一盘泡菜58元，服务员全是朝鲜美女！
도우인 抖音	高二羊	2024.01.21	东北自驾，辽宁沈阳，朝鲜国的饭店和表演
	安小熊	2024.03	西塔美食攻略之迎日朝膳府
	馋猫日记in太原	2023.12	268在朝鲜玉流馆吃顿双人餐
	太原白小白	2023.10	没想到在太原还有这么一家纯正的朝鲜餐厅！平时进都不敢进，现在有抖音团购了！快去尝尝呀！

3. 연구 가설

중국과 관련해서 볼 때 북한은 이주의 여성화라는 현재의 글로벌 자본주의의 노동체제만 반영하는 것은 아닌듯하다. 이러한 변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지나치게 보편적인 관점이기도 하므로, 중국의 시선을 고찰할 경우에는 특수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중국을 고찰할 경우 중국의 현대사에서 이른바 ‘중조(中朝) 관계’에 주목하면 과거로부터 이어져오는 ‘북한의 여성화’라는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테면 냉전 시기 중국 영화들이 재현하는 북한에 대한 시각에서 주목할 점은, 시종일관 중국을 ‘남성’으로 북한을 ‘여성’으로 표상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59년 영화 <우의(友誼)>에서는 중국 지원군이 미군에게 폭행당하는 북한 여성을 구조한다. 남성이 여성을 돕는,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돕는 서사구조가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다. 이러한 젠더화는 중국과 북한 간의—비록 혈맹이지만—‘위계서열’을 함의하고 생산한다. 또한 이 영화에 북한의 남성-인민군은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여성이 등장하되 주로 민간인 여성이 등장하며, 북한 여성의 성애적 특성은 최대한 생략된다. 1950~60년대 여러 영화들에서도 북한 남성 인민군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북한은 주로 여성으로 재현됨을 필자는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 있다(김란, 2017: 231). 북한식당을 고찰할 때 우리는 현재의 글로벌 자본주의의 이주의 여성화뿐 아니라, 북·중 관계의 역사에서 작용하는 북한의 젠더적/여성적 재현이라는 경향도 존재함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북한식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중국이며, 가장 먼저 설치된 곳도 중국이다.⁸⁶⁾ 본 연구는 이주노동의 여성화란 관점을 수용하지만, 중국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내에서 북한의 젠더적 재현 경향과, 북한 자신에 의한 재현의 젠더화**를 분석하여, 이것이 북한식당의 북한적인 것 유지 및 구성과 맺는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북한식당에는 이주노동의 여성화의 글로벌 자본주의적 요소가 분명 존재하지만, 북중 관계와 북한 체제 내부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동한다고 보려는 것이다.

4. 공연이라는 앞무대와 강화되는 젠더화

북한식당은 재현을 재현하는 ‘초국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이지연, 2023). 북한적인 것을 식당공간과 식당에서의 행위수행(performance)을 통해 재현하는 것이다. 북한식당의 여성종업원의 친절함과 서비스, 젠더화된 속성은 북한을 둘러싼 이미지들, 즉 서구인과 여러 나라 사람들의 ‘시선’을 구성하는 핵

86)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매체이긴 하지만 Voice of America(VO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북한은 베이징, 상하이, 다롄, 단둥, 선양, 훈춘, 투먼 등 중국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수십 개의 식당을 운영 중이며 지역별로는 선yang이 17개, 단둥이 13개, 창춘이 8개, 베이징이 7개, 상하이 7개 등 운영되고 있다(합지하. “중국 전역서 북한식당 ‘수십 개’ 확인 ... 선yang 17개·베이징 7개.” 2024.03.12. VOA). (검색일: 2024년 6월 20일)

무기와 독재의 국가라는 이미지와 기본적으로 충돌한다. 북한식당은 기존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반대로 재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음식서빙과 공연 등 여성성을 극대화하는 서비스가, 다른 한편으로는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거나, 정치적인 대화나 사적대화는 금지하는 불편한 규칙들이 병존한다.

북한식당을 방문하면서 몰래 영상을 찍은 한 크리에이터는 한국인 친구와 아내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다: 한국 친구는 “너 죽으러 갔냐”고 하고, 제 아내는 “장비를 부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야”라고 했어요, 겁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출처: 吴妈安达. 2020.09.28.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북한식당은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식당을 방문한 미국인의 변화에 대해 관찰한 기술은 미국인의 선입견과 북한식당 체험 이후의 변화를 이어서 보여준다. 선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미국인은 선전에 포획당한 사람일 것이다.

두 번째 방문 때 옆 테이블에 미국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 한 사람이 북한을 매우 싫어하는 것 같았고, 들어올 때 동료들과 말다툼을 했어요. 하지만 공연이 진행되면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놀라움에서 편안함으로 변하고, 결국 분위기에 완전히 녹아들어 음악에 맞춰 동료들과 함께 북한 아가씨들과 춤을 추는 걸 직접 봤어요. 그를 이해할 수 있어요. 매일 북한 뉴스를 보는 사람이 이런 북한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 쉽지 않죠.

이러한 부자유와 선입견과는 별도로, 결국 북한식당의 핵심은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접근하는데서 오는 ‘신비로움’을 제공한다. 이 신비로움은 바로 ‘젠더화’와 결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유튜브 버들이 북한 여종업원의 미모와 서비스를 부각시킨다. 젠더화된 북한식당은 대체로 신비로운 것으로 재현된다.

외관만 봐도 꽤 신비로워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무대에서 수행되는 ‘공연’에 가장 주목한다. 그런 면에서 북한식당은 북한의 ‘디즈니랜드화’라고도 할 수 있다. 그 핵심장치는 여성들의 ‘공연’이다. 공연은 고프만(Erving Goffman)이 제시한 용어를 활용하면, 북한이 재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 ‘앞무대(front stage)’를 최대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럴수록 뒷무대(back stage)는 드러나면 안 된다(금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앞무대와 뒷무대의 엄격한 분리는 여종업원들을 예술가로 정체화(identify)하는 기능을 한다.

정말로 30분 넘게 공연했는데, 마치 대규모의 정규 문화예술 공연 같았어요. 사실 이런 공연은 상하

이의 어느 레스토랑도 대체할 수 없을 거예요.

이곳의 직원들은 마치 **전능한 예술가** 같아요. 중국어로 노래하고 춤추고 음식도 서빙하고요.

북한식당의 종업원들이 엄격한 선발과 훈련을 거쳐 배치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분(북한 용어로 ‘성분’)도 훌륭한 편이며, 외국어(중국어) 능력도 반드시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상의 요소들은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자부심 또는 (나라일을 한다는) 공적 의식을 야기한다. 또한 종업원들 개인생애사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식당에서의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통제 하에서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소비를 덜 하게 되고 북한으로 귀국할 경우 ‘목돈’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한다(이지연, 2023:145). 따라서 이들 입장에서는 북한식당 경력을 이른바 ‘스펙’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일 종업원들의 개인생애사에서의 이와 같은 이득을 고려한다면, 북한식당 운영에 대한 ‘동의’ 기제가 다소 존재할 수도 있으며, 종업원들이 일방적인 강제 하에서만 놓여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진다.

실제로 북한식당을 방문한 중국인들은 북한종업원들이 본인들보다 중국 역사를 더 잘 알고 있는데 놀라고 종업원들이 매우 ‘지적’이라고 평가한다.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매우 교양 있어요. 식사 중에 한 아가씨가 아버지께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물었고, 아버지가 “난징”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녀가 난징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즉시 난징의 역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난징이 육조고도였던 것부터 주체(朱棣)가 수도를 옮긴 이야기까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난징 육조고도가 각각 어느 왕조인지도 알고 있어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아마 많은 난징 사람들도 모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국 문화를 열심히 공부했고, 중국 문화에 대해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종업원들의 공연을 재미없어 하는 손님들은 음식값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불평한다. 일부 북한 식당은 북한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중국인 사장이 소유 관리하는 곳도 있다.⁸⁷⁾ 중국인 소유 식당의 경우, 룸마다 ‘별도의’ 공연을 하기도 한다. 방마다 별도의 공연을 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대신 룸의 크기가 매우 크다).



출처: 虎先生tiger. 2023.05.28.(좌) 龙哥. 2023.02.23.(우)

손님들의 생일파티를 해주고 사진을 같이 찍거나, 공연 중에 손님들을 무대로 불러 같이 춤을 추게 하고 노래를 같이 부르거나, 공연이 끝나고 함께 포토타임을 갖는 등, 공연 이벤트는 놀이공원적 성격을 지닌다. 일부 손님들은 다른 식당과는 달리 이곳에서 존중받고 환대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87) 중국인 소유 식당에서의 북한 종업원 고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탐색하여 확인할 것임.



출처: 冒险雷探长. 2020.12.21.(좌) 飞向月球的田二哈. 2021.06.10.(우)

게다가 이 식당에는 남성 직원이 전혀 없고, 모두 매우 예쁜 아가씨들뿐이에요. 주목할 점은 이곳이 1인당 200위안 정도 하는 식당이라는 거예요. 보통 1인당 200위안 정도 하는 식당에서는 이렇게 많은 젊고 예쁜 서비스 직원을 고용할 수 없어요. 더구나 이 직원들은 모두 믿기 힘들 정도로 열정적이고 전문적이에요.

물을 채우고 술을 따르는 것, 모든 요리를 잘라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전체 식당에 손님이 두 테이블밖에 없어서 각 테이블에 한 명의 직원이면 충분한데도, 거의 모든 테이블에 네 명 이상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술을 따르는 사람, 요리를 소개하는 사람, 차를 따르는 사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북한 측의 북한식당을 통한 북한 ‘브랜딩’도 최대한 젠더화를 밀고나가는 듯하다. 북한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젠더화된 선전을 하는 곳이 북한식당이다. 북한이 유엔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주노동을 통한 자유롭고 개별화된 송금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물론 브로커를 통한 북한으로의 비밀 송금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⁸⁸⁾

북한의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진술하듯 그만한 가격으로 이 정도 수준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은 중국 내에 없다.

그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 요약하자면, 저는 많은 식당을 가봤지만,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 직원들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일본에서 3만 엔짜리 요리를 먹을 때도 이 식당의 서비스 직원들만큼은 못했어요.

북한 체제의 입장에서 종업원 훈련비용이나 단체숙소 생활비용, 관리자 인건비 등은 꽤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더 많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좀 더 경영적으로 돈이 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겠지만, 공연을 고수하는 것이 체제 선전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테이블에 많은 종업원이 서비스하는 것도 비용 요인일 것이다. 이것이 물론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소인 젠더화 노선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북한식당이 이처럼 체제선전을 하면서도 젠더화 노선을 취하게 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연이든 음식이든 현지인들의 취향에 맞게 조정하고 적응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 식당에서는 단순히 북한적 미학(혁명가라든가 조선가요 등)만을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최신가요를

88)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의 신규 파견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결의 제2397호는 이미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송환토록 했다. (정희완. “중국, 북한 노동자 전원 복귀 요구?...중국 ‘억측과 과장.’” 2024.07.09. <경향신문>) 뿐만 아니라 외화 거래 제한도 대북제재에 포함된다. 대북제재는 북한식당이 쇠퇴하는 요인이 되었다(Lim, 2020:114). 그러나 현재 라오스,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의 해외 북한 식당은 여전히 운영 중이다. (김연지. “[대북제재 효과는] 경제 압박 불구 北 잇따라 도발...제재 실효성 ‘글쎄.’” 2023.03.13. <매일일보>) (검색일: 2024년 7월 29일)

부르고, 전자기타를 치거나, 최신곡에 따라 댄스를 선보이기도 하는 등 중국인들이 좋아할 요소들을 많이 포함한다. 이러면서 여종업원의 젠더 디스플레이는 더욱 강화되는 듯 하다.

공연은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재미있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북한 전통 공연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들의 장식이나 의상이 모두 매우 북한 스타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세 명의 아가씨들이 갑자기 전자 악기를 들고 나왔어요. 일렉트릭 기타, 드럼, 전자 키보드로 록음악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록 버전의 여자 십이악방(중국의 여성 전통 악기 연주단을 일컫는 말) 같았어요.

재즈 댄스와 탭 댄스도 추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양금과 기타를 치고, 베이스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색소폰을 불고 드럼을 치기도 해요. 게다가 정확한 발음과 민족적인 창법으로 중국 대중음악도 불러요.

이러한 공연에서의 조정과 적응 전략은 미학적인 측면에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밴드공연자들과 유사하다. 이처럼 젠더화되는 공연은 냉전기 중국에 의해 북한이 여성적인 것으로 표상되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음식도 중국인의 입맛에 맞추려는 적응 작업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북한음식 중 신선로(神仙爐)를 판매하면서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신선로가 중국 청나라에서 연유했으며, 원래는 열구자탕으로 불렸다고 설명한다(Lim, 2020: 114).

이처럼 공연과 음식을 현지화(localizing)하는 과정에서 진정성(authenticity) 문제가 부각된다. 북한의 체제와 문화를 선전하고 보급하면서도, 현지화 과정에서 북한적인 것을 변용하고 재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북한적인 것(진정성)을 훼손시킬 리스크(risk)가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식당 간판을 내걸지 않은 중국인 소유의 일반 중국식당에서 북한여성이 일하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적응이면서도 추가적으로 새로운 적응 과제가 부과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까지 조정하고 적응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젠더화의 강화를 통한 재현 전략은 이와 같은 조정과 적응의 과정에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고찰]

5. 젠더화된 오리엔탈리즘[보완필요]

앞서 중국은 남성, 북한은 여성으로 위계화된 인식이 과거부터 존재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젠더화는 구체적으로 위계화와 어떤 연관을 맺는가? 과거의 젠더화와 현재의 젠더화의 성격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이는 중국인이 가난하고 폐쇄적인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북한에 대해 말하자면, 사람들은 아마도 폐쇄적이고, 가난하고, 낙후되고, 독재적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나라가 상하이에 두 개의 식당을 가지고 있다니요. 이 식당의 특징은 뭘까요?

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면 매우 억압적인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은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 옆에 두 명의 북한 서비스 직원이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이 식당의 환경을 찍을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매우 억압적이에요.

북한 계속해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수출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것들을 수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이라도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인들 역시 북한을 가난한 국가이자 억압적인 국가로 인식한다.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수준이 다르지만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중국의 일부 집단들은 ‘사회주의 노스텔지어’의 각도로 북한을 인식하기도 한다. 중국의 좌파 매체인 우여우즈상에는 북한여행기를 수시로 게재하면서 북한을 사회주의를 여전히 고수하는 이상향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중국의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 속에 사라져가는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라고 볼 수 있다(주윤정, 2017: 113). 이들은 오히려 가난함을 순수함으로 해석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을 가진 이들은 극히 일부로 보인다.

베트남 등 동남아 북한식당은 ‘공연’이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이 더 많고 북한음식만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중국 식당에는 공연이 필수지만, 이처럼 음식만을 판매하는 것은 동남아 북한식당이 중국과 달리 남한인들의 소비를 주 타겟으로 하기 때문이다(이지연, 2023: 147). 이럴 경우 특히 평양냉면이 주요 음식으로 제공되는데, 남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이 소위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지 모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같은 민족의 ‘음식’을 먹는다는 관광 체험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평양냉면을 먹는다. 음식의 동질성은 아마도 민족 동일성의 핵심 중 하나일 것이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불구하고 감각(미각)의 힘은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6. 나오며

본 연구는 이주노동의 여성화란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중국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내에서 북한의 젠더적 재현 경향과, 북한 자신에 의한 재현의 젠더화**를 분석하여, 이것이 북한식당의 북한적인 것 유지 및 구성과 맺는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체제 선전에서 출발한 북한식당이라는 간접적 북한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상품은 북한이라는 공간적 경계를 벗어나 해외에 설치되기 때문에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적인 것을 재현하면서도 재현을 수용하는 대상의 문화적 선호도에 적응하는 조정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러한 조정의 양상을 중국에 설치된 북한 식당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중국의 북한식당은 그동안의 중국과 북한의 역사적 관계 맥락을 반영한 재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항미원조 이후 중국이 북한을 돕는다는 서사는 남성이 여성을 돕는다는 인식틀을 낳았다. 북한적인 것의 재현 과정에서 ‘진정성’과 ‘현지화’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연의 내용을 중국인이 선호하는 스타일로 변용하거나, 심지어 중국인 소유의 북한식당에서는 공연을 별도의 공간에서 수행하는 등 크고 작은 조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조정은 젠더화를 강화하는 방향을 취하면서도 그것이 갖는 진정성 파손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부속 조치도 개발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식당에는 이주노동의 여성화의 글로벌 자본주의적 요소가 분명 존재하지만, 북중관계와 북한체제 내부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